

화엄학 연구 자료집

淨 嚴(徐海基)

〈目次〉

- | | |
|----------------|-------------------------|
| 1. 머리말 | 5. 화엄교학에 관한 연구 |
| 2. 언어·문헌학적 연구 | 6. 화엄종 祖師와 저작에
관한 연구 |
| 3. 화엄경에 관한 연구 | 7. 화엄학연구와 과제 |
| 4. 화엄사상에 관한 연구 | |

1. 머리말

1.1. 시작하는 말

학자들 사이에서 중국 불교는 『楞嚴經』과 『圓覺經』을 중심으로, 한국불교는 『華嚴經』을 중심으로, 일본불교는 『法華經』을 중심으로 신앙이 형성되고, 사상적 토대를 이루었다고 이야기 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의 사정은 차치하고, 우리나라의 경우 신라때부터 많은 화엄학자가 배출되고 화엄사상을 근본으로 한 많은 사찰이 건립 되었으며, 화엄사상이 신라가 삼국을 통일하는데 사상적으로 크게 영향을 끼쳐왔다는 사실은 잘 알려진 사실이다. 이러한 찬란한 민족사가 화엄사상을 무시하고 해명이 가능 할 것인가 하는 점에 대해 새롭게 생각해볼 필요성을 절감하면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많이 보급되고 신앙 되어왔던 화엄사상이 현재 과연 제대로 자리매김되고 있는지에 대하여 냉정히 성찰해야 할 시점에 서있다고 생각한

다. 오히려 『法華經』을 중심으로 토대를 쌓아온 배경을 가지고 있는 일본의 학자들에 의해서 화엄학과 관련된 저서가 훨씬 많이 나오고있고,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점은 他山之石이 아닐 수 없다.

이 글을 쓰는 목적은, 근대이후 현재까지 일본에서 연구 되어진 화엄학 연구 성과물을 연구주제에 따라 항목별로 정리하여, 국내에서 화엄학 연구를 지향 하고있는 젊은 후학들에게 소개하기 위함이다. 그리하여, 이 자료를 토대로 새로운 화엄학의 연구 방향을 설정하는데 도움을 주고, 화엄학에 대해 생소한 사람에게는 이 글이 화엄학에로 초대해주는 안내서가 되어, 화엄학에 입문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다. 이러한 목적을 가지고 관계 자료들을 수집했으며, 수집된 자료를 다시 주제별로 분류 하고, 이 주제를 중심으로 상세히 연구상황을 소개하고자 한다. 우선 먼저, 구체적인 연구상황 설명에 들어가기 전에 일본 화엄교학사를 간략히 소개해본다.

1.2. 일본 화엄학 연구사 略說

1.2.1. 중세부터 明治시대 이전까지

일본에 華嚴敎學을 최초로 전한 인물은 唐나라 僧 道濬으로써, 天平8년(736) 7월에 전해 왔다. 그러나, 실질적인 화엄교학의 전파는 奈良시대에 法相宗의 僧 良弁(689~773)이 신라의 화엄학승 審祥(?~742)을 金鐘寺에 초빙하여 강사로 모시고 강연회를 한데서 시작되었다고 할 수 있다¹⁾.

1) 新羅僧 審祥에 대한 기록은 鎌倉시대의 화엄종 승려인 凝然이 지은 『三國佛法傳統緣起』의 「華嚴宗高德記」에 「新羅學生大安寺審祥」이라고 기록되어 있다. 또, 良弁은 法相宗에 속하며, 東大寺 大佛을 조성한 중심 인물이다. 그에 의해서 東大寺에 화엄학당이 개설되고, 화엄학이 본격적으로 연구되기 시작하였다. 다음은 이들에대한 참고문헌을 소개한다.

· 齋藤昭俊·成瀬良德 編 「華嚴宗」 『日本佛敎宗派辭典』所收, pp.32-39, 新人物往來社, 昭和63.

· 堀池春峰 『南都佛敎史の研究』上, 東大寺篇, 法藏館, 昭和55. pp.386-431

· 井上光貞 著 『古代 日本佛敎の展開』, 吉川弘文館, 昭和 50.

· 平岡定海 「新羅審祥の敎學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20-2, 昭和47.

審祥은 당나라에 유학하여 華嚴敎學을 大成한 賢首法藏(643~712)門下에서 화엄교학을 배웠고, 그의 화엄교학을 계승 하였으리라 여겨진다. 법장의 화엄교학을 계승한 審祥의 화엄학 강설은 天平12년(736)부터 약 5년에 걸쳐서 베풀어 졌다고 전해오고 있으며²⁾, 현재는 전해오고 있지 않지만, 『華嚴起信觀行法門』 1卷을 述했다는 기록이 『諸宗章疏錄』에 보이는데, 이는 그의 화엄학에 대한 학식을 조금이나마 짐작 해볼 수 있게하는 좋은 자료가 되고있다. 이후 東大寺를 중심으로 良弁과 그의 제자 慈訓(?~777)에 의하여 화엄교학이 계속 강설되고 전파되었으나, 규모면에서 다른 종파보다 크지 않았다. 중세 일본에서 본격적인 화엄교학의 연구는 鎌倉時代に 明慧上人 高弁의 高山寺派와 東大寺派의 凝然에 의하여 시작된다. 이시기가 일본 화엄교학 부흥기에 해당한다고 할 수있다.

高山寺의 明慧上人 高弁(1173~1232)은 法藏의 화엄교학을 받아들이지 않고, 法藏과 동시대에 화엄사상을 연구한 李通玄(635~730)의 화엄사상의 채택하였다. 또, 선종(臨濟宗)의 榮西(1141~1215)로부터 禪思想을 받아들이고, 당시 유행하던 밀교사상을 적극적으로 취하여 佛光觀을 실천하였고, 선사상과 화엄사상의 융화를 꾀하는등 실천적이고 적극적인 화엄사상을 선양하였다.

또, 鎌倉時代의 대표적인 화엄학자 凝然(1240~1321)은 東大寺에서 法藏과 澄觀으로 이어지는 정통 화엄교학의 학풍을 이어받아 화엄교학을 크게 일으켰다. 凝然은 화엄교학 이외에도 많은 저서를 남겼으며, 이중 당시에 활동이 활발했던 종파의 교의를 기록한 『八宗綱要』와 『三國佛法傳統緣起』, 『律宗綱要』 등은 『日本佛敎全書』에 수록되어 있다.

江戸時代に 鳳潭(1657~1738)은 凝然이래 전해오던 화엄교학의 전통을 계승·발전시켰는데, 특히, 澄觀以來의 화엄교학의 전통을 비판하고, 法藏의 입장으로 돌아갈 것을 주장하였다. 또, 普寂(1707~1781)은 鳳潭의 학설을 받아들이면서도 나름대로 독자적인 敎判論, 즉, 同別二敎論을 주장하였다.

2) 結城令聞 「華嚴章疏の日本傳來の諸說を評し, 審祥に關する日本傳承の根據と審祥來日についての私見」 『南都佛敎』40, 1978.

1.2.2. 明治이후 개화기의 화엄학 연구

明治이후 근대화와 개화의 바람이 불교계에도 찾아들기 시작하였다. 서양적 학문 연구 방법론을, 전근대적 이었던 불교학 연구 방법에 도입하면서, 기존의 종파위주의 연구에 한정되었던 연구 태도에서 벗어나, 새로운 형태의 불교학 연구방법이 모색되었으며 이를 계기로 새로운 화엄학자들이 배출되기 시작하고, 화엄학 연구에 일대 변화가 일어나기 시작하였다.

신시대에 맞는 새로운 화엄학 연구의 발판을 구축 하는데에는, 大谷學派의 高倉學寮(日本 京都 所在. 大谷大學의 전신) 출신의 華嚴學者들의 역할이 컸으며, 華嚴學寮 학장이었던 一蓮院 秀存師(天命8年{1788}~萬延元年{1860})가 그 선구자라고 할 수 있다. 一蓮院 秀存師의 성씨는 小島이며, 어려서부터 漢學을 배웠고, 京都에 있는 高倉學寮에 입학하여 『俱舍論』, 『瑜伽論』, 天台教義, 華嚴思想, 三論學 등 불교 모든 학과의 학문을 섭렵하였으며, 그중에서도 화엄학에 가장 능통했다고 전해오고 있다. 나중에는 高倉學寮의 책임자가 되어 『華嚴學旨歸』, 『五教章』, 『探玄記』 등 화엄교학을 강의 하였고, 그외에도 많은 經典과 語錄을 강의 했다. 이 강의를 계기로하여 젊고 유능한 화엄학자들이 배출되기 시작 하였으며, 一蓮院 화엄학당 출신의 대표적인 학자로는 脇谷摎謙, 湯次了榮, 龜川教信, 河野法雲 등을 들수있다. 一蓮院의 『華嚴學講論』 六卷이 明治32年 吉谷覺壽에 의해 교정·출판되었고, 『探玄記 講義』는 昭和 3년 松原恭讓에 의하여 교정·출판 되었다. 明治, 大正시대의 대부분의 華嚴學者는 秀存師로부터 직접 내지 간접적으로 교시를 받았거나 그곳 출신들로서 그의 영향을 받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1.2.3. 근·현대의 화엄학 연구와 화엄학 자료집

근·현대 일본의 화엄학 연구는 자료집 발간에서 그 특징을 찾아볼 수 있으며, 이 자료집을 토대로 화엄학 연구 상황을 쉽게 파악 할 수있다. 특히, 근대 화엄학 발전에 크게 공헌한 湯次了榮박사에 의하여 明治시대에

「華嚴典籍と其の流行」이 六條學報98·99호(明治42·43년 발행)에 발표되면서 부터이다³⁾. 이 논문의 주된 내용은 화엄경이 중국에 전래된 경위와 최초로 60卷本 『華嚴經』이 東晉의 佛馱跋陀羅(覺賢Buddhabhadra 359~429)에 의하여 서기 418~420년(東晉.義熙14~元熙2 혹은 永初2)에 『大方廣佛華嚴經(34品)』으로 역출되어 유통 되어진 과정을 간략히 서술하고 있는데 그치고 있지만, 이 논문이 뒤에 미친 영향을 생각해 볼때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어서 湯次了榮박사는 「華嚴經流行の今昔」을 六條學報103호(明治43)에 발표하였는데, 이 논문의 특징은 華嚴宗이 馬鳴, 龍樹, 世親보살로 이어지는 인도 대승불교의 주역들에 의해서 전해졌음을 강조하고 있는 점에 있으며, 중국에서의 전승과정에 대해서는 화엄初祖 杜順으로부터 智儼, 法藏, 澄觀, 宗密에 이르기 까지 종래의 傳統說을 그대로 계승하여 설명하고 있다. 여기에서 주목 할 만한것은 화엄학의 변천사를 翻譯시대, 註釋시대, 大成시대, 實踐시대, 禪化시대, 復活시대등 여섯시기로 구분하고 각 시대별로 특징을 설명하고있는 점이다. 특히, 일본 화엄종의 유래와 전승 과정을 奈良시대부터 明治시대까지의 시대적 상황을 중심으로 서술하고 있는데, 이 시기가 또한 일본에서 화엄종이 번창 하였던 시기로서 復活시대에 해당한다고 말하고 있다.

河野雲集박사는 「華嚴教學研究の回顧」를 支那佛教史學 第5卷, 第1號(昭和16)에 발표하였는데, 明治이후 昭和10년대 까지의 華嚴學 연구동향을 개괄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이 회고록은 당시에 화엄학의 연구동향과 방향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도록 간단한 내용 소개와 함께 당시 화엄학자들의 활동상을 간략히 소개 하고 있다.

본격적인 화엄학 연구자료집의 시작은 鎌田茂雄박사의 『華嚴關係文獻目録』(龍谷大佛敎會, 「佛敎學研究」 第16·17合併號, 昭和34)이다. 이 자료를 보충하여 「華嚴學典籍及び研究文獻」이라는 제목으로 『華嚴思想』(法藏館, 昭和35)에 발표하기도 하였다. 이들 자료집은 화엄사상과 관련하여 당시 까지 이루어진 연구성과, 연구서적, 논문을 총망라하여 그때까지의 연구

3) 六條學報는 옛 명칭이며, 현재 『龍谷大學論集』으로 새롭게 개칭되어 발행되고 있으며, 여기에 이들 논문이 수록 되어있다.

동향을 정리한 종합적인 화엄사상 연구자료집 이라고 할 수 있다. 최근에는 위의 자료들을 분야별로 정리하고, 새로운 자료를 보충 종합한 『華嚴學研究資料集成』(大藏出版1983)을 내놓았다. 이 자료집은 단순한 자료집으로서의 가치 뿐만 아니라, 화엄학 연구자를 위한 안내서 및 개론서의 역할도 할 수 있도록 입체적이고 체계적으로 정리한 방대한 분량의 자료집이다. 이 책의 뒷부분에는 해외(한국, 대만, 중국, 미국, 유럽제국) 화엄학 연구동향도 간략히 소개 하고있다.

위에 소개한 자료집들을 통하여 일본에서 화엄학의 연구성과와 연구동향을 자세하게 알 수 있었다. 위의 자료집에서도 잘 나타나 있지만, 최근에는 화엄학의 연구영역이 넓고, 연구 주제가 전문화 되면서도 한편으로는 다른 사상과의 교류가 다양해지고 있는데, 이는 인접 학문과의 관계가 긴밀해지면서 화엄사상의 응용 범위도 넓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입증 하고 있는 것이다.

2. 언어·문헌학적 연구

2.1. 화엄경과 日譯

2.1.1. 화엄경의 종류

『華嚴經』大本은 『般若經』계통의 사상으로부터 발전한 대승교리와菩薩行의 階位사상을 기반으로 하여, 因行果德에 의하여 합리적으로 배열하고 질서화 한 「華嚴菩薩道」로써 체계가 이루어졌다. 이 경은 翻譯時期와 特性에 따라 다음의 네종류가 있다

① 『大方光佛華嚴經』(舊譯) : 大正藏 제9권에 수록. 卍續藏經7, 3-5.

東晉의 佛馱跋陀羅(覺賢Buddhabhadra 359~429)에 의하여 서기 418~420년(東晉, 義熙14-元熙2) 혹은 永初 2년에 역출된 『大方廣佛華嚴經』 34品, 六十卷本을 말한다. 이 경을 略稱하여 『六十卷華嚴』 또는 『六十卷

本』 이라고 부른다.

② 『大方廣佛華嚴經』(新譯) : 大正藏 제10권에 수록. 卍續藏經7, 6-9.

唐의 實叉難陀(Sikṣānanda 652~710)에 의하여 서기 665-699년(唐, 證聖元年-聖曆2년)에 역출된 『大方廣佛華嚴經』 39品, 八十卷本을 말한다. 이 경을 略稱하여 『八十卷華嚴』 또는 『八十卷本』 이라고 부른다.

③ 『大方廣佛華嚴經』(『入不思議不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40卷) : 大正藏 제10권 661, 卍續藏經7, 10-8, 1.)

唐의 般若(Prajñā, 智慧로도 번역함, 生沒年代未詳)에 의하여 서기 795~798년(唐, 貞元11-14)에 번역된 『大方廣佛華嚴經』 1品, 四十卷을 말한다. 이 경을 略稱하여 『四十卷華嚴』 또는 『四十卷本』, 『貞元經』 이라고 한다. 이 經은 「入不可思議解脫境界普賢行願品」, 다시말하면 「入法界品」만으 이루어졌다.

④ 『佛華嚴』이라 이름지어진 大方廣經 : 티베트의 지나미트라(Jinamitra) 등에 의하여 서기 9세기 말경에 번역된(Saṅs-rgyas phal-po-che shes-bya-ba śin-tu rgyas-pa chen-poḥi mdo 「佛華嚴」이라고 이름지어진 大方廣經), 45品, 1卷으로 구성된다. 이 경을 약칭하여 『藏譯華嚴』 이라고 부른다. 이 經은 「莖莊嚴品」(大本華嚴經의 「入法界品」에 해당함) 이 크게 보강되었다.

이외에도 별행본으로 범어 원문이 현존 하고있는 『十地經』(Daśabhūmiśvaronāma Mahāyāna sūtra)과 「入法界品」(Gaṇḍavyūha Sūtra)이 있다. 이 두 품은 화엄사상의 형성에 지대한 영향을 미쳤을 뿐만아니라 대승사상 형성에 증추적 역할을 하였다.

2.1.2. 일본어 번역

・衛藤即應 翻譯 : 60卷本 『華嚴經』 國譯大藏經·經部5—7, 上·中·下 3冊, 第一書房, 昭和49

賢首法藏이 화엄교학을 대성하는데 사용하였던 기본 성전인 晉譯, 즉, 60卷本 『華嚴經』의 일본어 번역판이다. 이 책은 大正6년에 번역된 것으

로써, 현대 日本語가 아닌 가키구다시(直譯)로 되어있다. 이 책의 첫머리에 解題가 붙어 있으므로 화엄경의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참고가 되고 있다.

- 衛藤即應 翻譯: 80卷本 『華嚴經』, 國譯一切經·印度撰述部·華嚴部1—4(4冊), 大東出版社, (초판)昭和4, (최근판)昭和63

60卷本 『華嚴經』을 번역한 역자가 80卷本도 번역한 것이다. 80卷本 『화엄경』은 居士로써 화엄경을 연구한 李通玄 長者와 李 長者의 영향을 받은 澄觀, 宗密의 華嚴教學에 많은 영향을 끼쳤다.

2.1.3. 화엄경 역경에 관한 연구

- 脇谷摺謙 「華嚴經兩譯と賢涼二祖の教義」 『六條學報』56·61·67, 明治39·40
- 加藤智達 「華嚴部經典の傳譯」 『眞宗學報』4, 昭和3
- 本多日生 「華嚴重譯經の對象」 『大藏經要義』권9에 所收
- 香月乘光 「舊華嚴經傳譯考」 『佛教文化研究』1輯, 京都, 法藏觀, 昭和19
- 村田常夫 「十地經傳譯小編」 『大崎學報』100, 昭和28
- 江部鴨村 『國語 全譯華嚴經』上·下卷 解説, 大正9

2.2. 화엄경의 梵本연구

『華嚴經』의 梵本은 완전한 형태로써의 범본은 현존하고 있지 않고, 별행본으로 알려진 「十地品」(Daśabhūmika-sūtra)과 「入法界品」(Gaṇḍavyūha-sūtra)만이 현존하고 있다. 이들 자료에 대해서는 眞田由美의 「華嚴經梵本について」(佛教學研究16·17合併號, 昭和34)와 山田龍城박사의 『梵語佛典の諸文獻』—大乘佛敎成立史序說資料篇—14 중 「華嚴經類」(pp.90-92. 平樂寺書店 1959)에 소개된 자료가 많은 도움이 되고있다. 본 논문에서는 십지품⁴⁾과 입법계품의 범본자료에 대하여 연구되어진 연구서나 자료집을

4) 「십지품」과 『십지경』의 명칭에 대하여:
「十地品」이라고 할때는 『華嚴經』(60권본, 80권본) 본문의 「품」의 명칭으로 쓰일 경우

소개한다.

2.2.1. 十地品の 梵本

「十地品」에 관해서는 프랑스인 학자 J·Rahder가 런던, 캠브리지, 켈커타, 카투만두, 파리에 남아있는 5종류의 사본들을 비교 정리하여 長行부분을 출판한 것이 본격적인 범본 십지경에 대한 연구의 嚆矢라고 할 수 있다⁵⁾. 뒤이어 계속해서 J·Rahder는 범어(산스크리트), 서장어(티베어), 몽고어, 한문 등으로 된 어휘집을 내 놓았다⁶⁾.

「十地品」의 偈文에 대해서는 J·Rahder와 須佐晉龍박사가 공동으로 Eastern Buddhist誌에 발표 하였는데⁷⁾ 이 偈文은 東京大學 도서관과 京都大學 도서관에 소장 되어있는 사본을 참고로 하였다. 또, 近藤隆晃은 이들 자료를 토대로 하여 長行(長行)과 계문(偈文)을 합하여 데바나가리(梵語原文) 一字體로 정리하여 간행 하였다⁸⁾.

2.2.2. 十地品の 일본어 번역본

- 龍山章眞 譯註 『梵文和譯·十地經』 破盡閣 昭和13.

이며, 경의 본문에 속한다고 생각 할 경우에는 「십지품」이라고 하며, 『화엄경』이 완전한 형태로 편집되기 이전에 별도로 유행했던 경우에는 「십지경」이라고 한다. 그러나, 범본 『십지경』은 아직 『화엄경』이 완전한 형태로써 편집되기 이전에 별행본으로 유통되었던 시기의 명칭으로써 『화엄경』이 편집되면서 「십지품」에 속하게 되었기 때문에 이 둘은 다르지 않다. 다만, 연구자에 따라서 독립된 경으로 보는 경우도 있음을 참고 해주기 바란다.

- 5) *Daśabhūmika-sūtra et Bodhisattvabhūmi -Chapitre Vihāra et Bhūmi, publiés avec une Introduction et des Notes*, (Prose Portion) par J. Rahder, (Société Belge d'Études Orientales) Louvain 1926.
* 第7地에 대한 범본은 J·Rahder에 의하여 별도로 京都에서 출판되었다.
J·Rahder: Daśabhūmika-sūtram, Seventh Stage, sanskrit text, including Translation of Vasubandhu's Commentary (*Acta Orientalia*, Vol.No.1 (1931~1932))
- 6) *Glossary of the Sanskrit, Tibetan, Mongolian, and Chinese Versions of the Daśabhūmika-sūtra*, (Buddhica, sér.2, tom.1) Paris 1928.
- 7) *The Gāthās of the Daśabhūmika-Sūtra*, ed. by J·Rahder and Sinryu Susa, *The Eastern Buddhist*: vol.No.4-vol.VI. No1 (1931-1932), 京都.
- 8) *Daśabhūmīśvaro nama Mahāyānasūtram*: revised and edited by Ryūko Kondō(梵文大方廣佛華嚴經十地品) Tokyo, 中山書房 1936. 再版.

梵文和譯『十地經』은 J·Rahder의 사본을 저본으로 하였으며, 여기에는 한문본, 일본어 번역본, 범본, 서장어본의 색인도 실려있다.

• 川瀬光順 翻譯『大乘道の實現』富山房, 昭和17.

『大乘道の實現』은 近藤隆晃가 역주한 연구서『梵文十地經』(中山書房, 再刊, 昭和37)를 중심으로 「십지품」 원문이 모두 번역 되었다.

• 荒牧典俊 翻譯『十地經』, 中央公論社, 昭和49

『十地經』은 近藤隆晃가 역주한『梵文十地經』을 底本으로 하고, J·Rahder의 사본과 티베어譯을 참고 하였다.

〈연구논문〉

- 龍山章眞 「新梵文十地經に就いて」 『佛教研究』1-2, pp.120-124. 昭和12.
- 菅昌顯敬 「梵文十地經の和・漢譯對照攷-特に發心と願心との關係を中心として-」 『鹿兒島大學文理學部紀要』2, 昭和28.
- 伊藤瑞彥 「十地經諸本及び十地思想に關する近時の研究成果, そして研究課題の所在について — 十地の構成内容の基本的特質 —」 『三藏集』4, 東京, 大東出版社, 昭和 53
- 武邑尙邦 「十地經梵文及び漢藏譯互照表から」 『佛教研究』16·17合併號, 昭和 34.

2.2.3. 入法界品の 범본

「入法界品」의 梵本은 당시 몇몇 학자들에 의해 일본에 유입된 梵文 사본을 泉芳環박사가 비교·교정하여 인쇄를 못한채 프린트본으로 유통시켰다가, 뒤에 鈴木大拙와 공동으로 The Gaṇḍavyūha Sūtra(ed. by D·T·Suzuki and H·Idzumi, 4 vols. kyoto, 1934~1936) 를 출판했다. 1949년에는 正誤表를 첨부한 寫眞本이 출판 되었는데, 이때부터 본격적인 범본 「入法界品」 연구가 시작되었다.

「入法界品」의 특징은 최후 부분이 「普賢行願讚」으로 이루어져 있는데, 이는 梵本 이름이 「普賢行願讚 Bhadracarī-praṇidhānarāja」이기 때

문이며, 여기에 대하여 渡邊海旭가 여러 사본을 대조·교정하여 출판한 Die Bhadracarī, eine Probe buddhistisch-religiöser Lyrik, untersucht und herausgegeben, Leipzig (1912)가 있다.

2.2.4. 入法界品の 일본어 번역본

- 岩本裕 翻譯『華嚴經(入法界品)抄』讀賣新聞社, 昭和51
- 梶山雄一 監修, 丹治昭義, 津田眞一, 田村智淳, 桂昭隆 共同翻譯 華嚴經入法界品『さとりの遍歴』上·下, 中央公論社, 1994

渡邊海旭의 위 책은 Gaṇḍavyūha Sūtra(入法界品) 原典으로부터 직접 번역한 것으로, 번역에 사용한 범본은 P·L Vaidya 校訂本을 저본으로 하였다⁹⁾. 「入法界品」全文이 일본어로 처음 완역된 것으로, 특히, 범어 원본을 직접 번역한 것은 매우 의의가 크다고 하겠다.

〈연구논문〉

- 泉芳環 「梵本普賢行願讚の研究」, 『無盡燈』14-2, 明治42
- 泉芳環 校訂, 翻譯『梵本 普賢行願讚』 『佛教研究』9-2, 昭和3. 大谷學報10-2 昭和4¹⁰⁾
- 足利淳 「普賢菩薩行願讚の梵本」, 京都大學文學部五十周年記念論集 所收, 昭和31.

이 논문은 慈雲尊者본을 저본으로 하고, 京都大學 梵語梵文學研究室에 所藏 되어있는 3本을 상세히 대조·교정하여 출판하였다.

- 長谷岡一也 「Vaidya本 Gaṇḍavyūha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13-1, 昭和40
- 「Gaṇḍavyūha梵藏漢對照解讀上諸問題」 『印度學佛教學研究』11-1, 昭

9) P·L Vaidya本 GaṇḍavyūhaSūtra, Buddhist sanskrit Text, No.5 Darbhanga, 1960을 底本으로, 앞에 소개한 鈴木大拙박사 泉芳環박사 교정본및 티베어로 번역된 『東北目録』44 (影印, 北京版761)을 참고하여 번역되었다.

10) 「普賢行願讚」은 『華嚴經』(四十卷本)의 최후 부분에 해당하며, 梵文 Gaṇḍavyūha의 가장 뒷부분에 첨부되어 있으며, 독립되어 유통되고 있던 것을 泉芳環박사가 개괄적인 설명과 함께 원문에 기존의 모든 번역본을 비교대조하여 발표한 역작이다.

和38

「梵藏漢の諸本對照によるGaṇḍavyūhaの解讀」『東方學』33, 昭和42
 「晋譯・華嚴經入法界品の本文の轉換について-第52善知識・彌勒菩薩の條に關して」, 『東方學』37, 昭和44.

- 月輪賢隆 「普賢行願讚の註疏(龍樹, 世親, 陳那, 戒賢)に就いて」
 『東洋學論叢』所收, 京都, 平樂寺書店, 昭和27
 『佛典の批判的研究』所收, 京都, 百華苑, 昭和46

2.3. 기타 언어학 문헌학적 연구

梵本이외에 Turoko文(回鶻文),¹¹⁾ 西藏語, 티베트어 등 다른 언어로 된 『화엄경』에 관한 연구가 다수있는데 여기서는 대표적인 연구서나 논문만을 소개한다.

- 羽田亨 「トルコ文華嚴經斷簡」,
 『中央亞世亞の文化』岩波一講座『東洋思想』所收, 岩波書店, 昭和9-11
 『石浜先生還曆記念論文集』, 關西大學東西學術研究所刊行, 昭和33
- 木内武男 「華嚴寺石刻華嚴經について」『ミュージアム』136, 昭和37
- 石濱純太郎 「回鶻文普賢行願品殘卷」¹²⁾ 『羽田亨博士頌壽記念東洋史論叢』
 pp.63-73. 東洋史研究會刊行, 昭和25
- 井ノ口泰淳 「ウテン語普賢行願讚考」1, 『佛教學研究』16·17 合併號, 昭和34. 「普賢行願讚考」2, 龍谷大學研究論集 420, 昭和57.
- 日野泰道 「智儼に傳へたる大慈恩寺華嚴梵本考」, 山口博士還曆記念 『印度學佛教學論叢』, 法藏館, 昭和30

日野泰道の 위 논문에서는 智儼의 『孔目章』에 언급된 「화엄경법본」이

11) 回鶻은 Turkistan 지방에 살았던 Turoko系 민족을 말함. 중국 역사중 南北朝시대 부터 韋鶻등의 이름이 전해져 오고있다. 9세기 중반경에 나라가 멸망하여 민족이 사분오열되었으며, 현재는 新疆省 ウィグル自治區에 많이 살고 있다.

12) 石濱純太郎의 「回鶻文普賢行願品殘卷」은, 저자가 발표한 『回鶻文觀音經』 부록 제3에 실려있는 불교경전을 『華嚴經』 四十卷本과 대조하고, 이 부분이 『普賢行願品』에 속한다는 사실을 입증해 보였다. 또, 저자는 이 번역본이 漢文本으로부터 거듭 번역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六十卷本 『華嚴經』의 원형으로써, 티베트어로 번역된 경의 제목과 상응하고 있음을 상세히 밝히고 있다.

- 日野泰道 「西藏譯華嚴經第11品」 『印度學佛教學研究』3-1, 昭和29

日野泰道는 위 논문에서,品の 명칭이 「如來華嚴品」이라고 되어 있는데 주목하고, 이 한 품속에 『화엄경』 사상이 다 요약되어 있으며, 「盧舍那品」이 다른 형태로 전개 된 것임을 밝히고 있다.

- 玉城康四郎 「世間淨眼品より十回向品」 『大乘佛教』所收, 筑摩書房, 昭和40

玉城康四郎박사의 위 논문은 「世間淨眼品」부터 「十回向品」까지를 梵本으로부터 일본어로 번역하였다.

- 高崎直道 翻譯 「如來藏系經典」, 中央公論社, 昭和50

如來藏思想 연구가인 高崎直道박사의 「如來藏系經典」은 北京版 「西藏大藏經」 즉, 티베트어로 번역된 如來藏系 경전들과 梵本에 남아있는 斷片들을 한역본과 대조 하기도하고, 참조 하기도 하면서 번역한 것이다. 如來藏系經典으로 분류하여 번역한 경전은 『如來藏經』, 『不增不減經』, 『勝鬘經』, 『華嚴經如來性起品』, 『智光明莊嚴經』 등이다.

3. 『화엄경』에 관한 연구

3.1. 『華嚴經』의 성립에 대한 연구

3.1.1. 『華嚴經』의 성립 연구

『華嚴經』의 성립에 관한 연구의 출발은 「十地思想」의 형성, 발전과정 및 「十地經」의 성립과 직·간접으로 관계가 있고, 또, 십지사상을 중심으로 하여 연구가 시작되었다. 다음의 久野芳隆박사의 연구 논문들은, 「십지

경』의 성립은 50~150년경으로, 「입법계품」의 성립은 163년 이후로 大本 『화엄경』의 성립은 350년경에 중앙 아시아 지방에서 성립된 것으로 추정 하고있다.

- 久野芳隆 『華嚴經の成立問題(特に入法界品に就いて)』 『宗教研究』 新7-2, 昭和5 『聖典史方法論の一斷片, 華嚴經の成立に關する 論爭』 『宗教研究』 新10-4, 昭和8
- 近藤隆晃 『大華嚴の成立年代』 『宗教研究』 10-2 (昭和8).

近藤隆晃박사는 위의 久野芳隆박사의 설에 대하여 반박하면서, 『華嚴經』의 성립시기를 용수보살(150-250년) 이전으로 추정하고 있다.

中村元박사의 「華嚴經の成立史的意義」(『華嚴思想』, 法藏館 (昭和35))에 서는 『華嚴經』의 성립을 서기 1-200년경으로 추정하고 있으며, 성립 장소는 중앙아시아일 것이라 하였다.

木村清孝교수의 『初期中國華嚴思想史の研究』, 春秋社(昭和52)에서는 당시 「화엄경」이 수차에 걸쳐 수정, 증보 되었을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그 예로써 佛馱跋陀羅(Buddhabhadra 359-429)가 번역한 60卷本 『華嚴經』과 이를 日照三藏등이 교정한 『華嚴經』(唐代初期)의 내용이 實叉難陀(Sikṣānanda 652~710)에 의하여 서기 665-699년(唐.證聖元年~聖曆2년)에 역출된 『大方廣佛華嚴經』 39품의 내용과 상당한 차이가 있는점을 지적하고 있다.

어떻든, 『華嚴經』의 편찬은 중앙 아시아지방 (아마도 코탄국(Khotan Oasis于闐國)에서 서기 3세기경에서 4세기경에 걸쳐 편찬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데 많은 학자들이 同意하고 있다. 코탄국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와 함께 화엄경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다음의 논문이 있다.

- 寺本婉雅 譯 「于闐と華嚴經との關係」 『于闐國佛教史の研究』, 京都, 丁子屋書店, 大正10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49
- 望月信亨 「西域地方における經典の編纂」 『佛教經典成立史論』 pp.44~54 法藏館, 昭和21

寺本婉雅박사와 望月信亨박사의 연구서는 대부분의 대승경전들이 서역

지방에서 편찬되거나 구상되었음을 주장하고 있다.

〈『華嚴經』 성립에 관한 주요 연구논문〉

- 久野芳隆 「菩薩十地思想の起源, 展開, 及び内容」 『大正大學學報』6-7 (荻原雲來博士還曆記念祝賀論文集), 1930
- 水野弘元 「菩薩十地說に展開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1-2, 1953 「十地說の展開」 宮本正尊篇 『大乘佛教の成立史的研究』 1954
- 大西龍峰 「華嚴經の成立流傳に關する古傳説 — 上中下三本說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33-2, 昭和60
- 山田龍城 『大乘佛教成立論序說』 pp.229~313. 平樂寺書店. 1959
- 宇井伯壽 「經典の成立と其の傳統」 『佛教文教大系』第2卷, 佛教文書傳道協會, 昭和26
- 石井教道 「大部華嚴編纂の構想に就て」 『東洋學論叢』 京都, 平樂寺書店. 昭和27
- 平川彰 「地思想の發達と三乘共通の十地」 『印度學佛教學研究』 第13-2, 1965

「地思想の發達と三乘共通の十地」는 地思想을 보살의 階位나 菩薩 수행의 단계와 관련지를 뿐만 아니라, 地에 관한 사상의 전통을 阿毘達摩까지 소급해 올라가서 찾아 내려고 한 점에 그 특징이 있다.

3.1.2. 『大事』와 十地思想

성립사에 관한 새로운 연구는 대승불교 성립과 관련하여 연구하는 경향인데, 특히, 大事와의 관계에 대한 연구의 선구자는 佐佐木月樵의 「華嚴經第3部の模型及び其の素材に關する研究」 였다. 이렇게 새로운 시각을 바탕으로 한 연구 논문들에 의하여 규명된 성과는,

- a. 「十地品」과 「入法界品」은 大本 화엄경이 성립되기 이전에 이미 각각 독립된 경전으로써 유통되고 있었으며,
- b. 『十地經』에서 설하고 있는 「菩薩十地」는 그 용어와 사상이 『本生談』, 『般若經』, 『大事』등 초기 대승경전에서 이미 常用되고 있었으며,
- c. 十地思想은 대승 불교운동이 전개 되어 가는 과정에서 점점 발전

완성되어 사상면에서 대승운동의 핵심적인 역할을 하게 되었다는 점등 크게 세가지라고 할 수 있다.

〈『大事』와 十地思想에 대한 연구논문〉

- 高原信一 「マハーウアスツ『大事』における十地の構成の一考察」 『印度學佛敎學研究』 第 3-2, 1955
- 藤村隆淳 「『マハーウアスツ』の十地」 『印度學佛敎學研究』 第19-2, 1971
- 荒牧典俊 「十地思想の成立と展開」 『講座大乘佛敎』 3, 華嚴思想 pp.80~120, 春秋社, 昭和58

「十地思想の成立と展開」은 「本生十地」, 「般若十地」, 「本業十地」, 「華嚴十地」등에 대하여 연구하였을 뿐만 아니라, 『菩薩瓔珞本業經』과 『十住斷決經』등에 나타난 十地思想까지도 시야에 넣고 연구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화엄경이 편찬된 시기와 장소에 대한 당시의 연구는 가히 획기적이었다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당시의 통설에 의하면 화엄경을 龍樹보살에 의하여 龍宮에서 가져왔다고 하는 전설을 유일한 근거로 하여 龍宮의 의미와 소재에 대한 논의를 중심으로 연구하던 시대로서 전근대적인 연구의 틀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당시에 용궁을 소재로 한 연구로는 大宮破穹의 『龍と龍宮と及び華嚴經』, 長岡義秀의 『華嚴聖典の起處 龍宮に就て』, 齋藤唯信의 『龍樹の華嚴經將來に就て』, 河野法雲의 『華嚴發達史』의 내용속에 「華嚴經に關する疑問」등의 연구논문이 있다¹³⁾.

이러한 전근대적인 연구 상황하에서 탈피하는데 큰 역할을 한 화엄경의 성립사적 연구는 매우 큰 의미가 있을 뿐만 아니라 기존의 원시적 연구태도로 부터 코페르니쿠스적 전환과 함께 근·현대 일본 화엄학 연구를 가속화 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13) 당시에 전설적으로 유행하고 있었던 華嚴經 龍宮 傳來說에 대해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成典을 성립사적으로 연구하면서 부정되었다. 그러므로 현재 용궁 전래설은 信仰만으로는 가치를 인정하지만, 학문적인 연구의 가치를 갖지 않으므로 연구성과물을 소개는 하지만 출전은 생략한다.

3.2. 『華嚴經』類에 관한 연구

『華嚴經』類는 單行本の 형태로써 『華嚴經』의 각각의 品에 대응하지만, 아직 『華嚴經』이 편찬되기 이전에 유통되었던 단행본들이다. 이들 단행본들은 대본 『華嚴經』이 편찬될 때에 각각의 品을 형성하게 되는데, 이들에 관한 연구는 『華嚴經』의 성립 및 사상형성 과정을 규명하는데 좋은 연구자료가 되고 있으나, 「十地經」, 「入法界品」을 제외한 대부분의 別行本들이 아직 본격적인 연구가 되어지지 않고 있으므로 많은 관심을 요한다.

다음은 『화엄경』류와 대응하는 대본 『華嚴經』의 品을 간단히 살펴본다.

- a. 『兜沙經』: 名號品, 光明覺品(後漢 支婁迦讖譯)
- b. 『菩薩本業經』: 名號品, 光明覺品, 淨行品, 十住品等(吳 支謙譯)
- c. 『菩薩十住經』: 十住品(東晉 祇多蜜譯)
- d. 『十住斷結經』: 十住品(後秦 竺念佛譯)
- e. 『十住經』: 十地品(後秦 鳩摩羅什, 佛陀耶舍譯)
- f. 『漸備一切智德經』: 十地品(西晉 竺法護譯)
- g. 『等目菩薩經』: 十定品(西晉 竺法護譯),
- h. 『如來興顯經』: 性起品(西晉 竺法護譯),
- i. 『度世品經』: 離世間品(西晉 竺法護譯),
- j. 『如來性起微密藏經』: 名號品, 性起品(西晉, 不明),
- k. 『摩羅伽經』: 入法界品(魏 安法賢譯)에 각각 대응한다.

중국에서 別行本에 대한 연구는 僧衛의 『十地經』註釋(서기 400년경)이었다고 『高僧傳』에 전하고 있을뿐¹⁴⁾ 이외에 別行本들의 연구에 대해서는 별다른 기록이 전해오지 않고 있다. 『華嚴經傳記』에 의하면, 5세기초에 龜茲國출신 삼장법사 鳩摩羅什(Kumarajiva, 433-412)이 長安에 들어와

14) 「高僧傳」五, 大正藏50, 356上.

佛陀耶舍(Buddhayaśas, 生沒年代未詳.)와 공동으로 『十地經』 4권을 역출하고, 初地에 대한 解説書인 『十住毘婆沙論』 16卷을 佛陀耶舍가 口誦하고 鳩摩羅什이 번역 하였으며, 『十住論』 10卷을 譯出 했다고 전하고 있다¹⁵⁾. 이 자료에 의하면 鳩摩羅什 문하의 道融은 『十地經疏』를 지었다고 전하기도 한다.

〈『華嚴經』類에 관한연구〉

• 境野黃洋 「華嚴宗」 『支那佛教史講話』 下卷419-447項, 東京, 共立社, 昭和4

境野黃洋박사의 「華嚴宗」은 60卷本 『華嚴經』의 「名號品」, 「光明闍品」에 해당하는 『兜娑經』(後漢의 支婁迦讖 譯)과 반야계 경전인 『道行般若經』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또, 大本 『華嚴經』의 성립 문제와 관련하여 다음의 別行本이 참고가 된다고 하고 있다.

- 『菩薩本業經』(吳, 支謙譯): 60권 화엄경의 名號品, 光明覺品, 淨行品, 十住品에 해당.
- 『漸備一切智德經』(西晉의 竺法護 譯): 十地品에 해당.
- 『六波羅密經』(般若三藏 譯): 반야계 경전으로 독립되어 유통.

• 木村清孝 「偽經と華嚴經·華嚴經類」 『初期中國華嚴思想史』 春秋社, 昭和52

木村清孝박사는, 이들 화엄경류가 『六十卷華嚴經』이 역출(420年)되었던 南朝의 劉宋代(420~479) 이전에 이미 『六十卷華嚴經』의 「名號品」, 「光明覺品」, 「淨行品」, 「十住品」, 「十地品」, 「性起品」, 「離世間品」, 「入法界品」과 『八十卷華嚴經』의 「十定品」등 大本 『화엄경』의 한 품 내지 여러 품에 대응하는 別行本으로써 2세기 후반 즉, 後漢이래 계속해서 역출되었다고 기술하고 있다¹⁶⁾. 그리고, 당시에 인도로부터 『十住毘婆娑論』이 유입되어 형성된 地論宗과 『攝大乘論』이 유입되어 형성된 攝論宗과의 관계속에서 초기 화엄사상의 성립 과정을 살피고 있다¹⁷⁾.

15) 『華嚴經傳記』 大正51, 155-156.

16)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の研究』, 第1節. 華嚴經類の傳播 pp.4~12, 春秋社 昭和52.

• 河野法雲 「華嚴經と菩薩本業瓔珞經との關係」 無盡燈19-12, 大正3

河野法雲박사는 일본의 화엄학자 가운데 가장 먼저 화엄경류에 관심을 갖고 연구한 학자로서, 이 논문에서 「菩薩本業經」이 화엄경의 「名號品」, 「光明闍品」, 「淨行品」, 「昇須彌頂品」, 「妙勝展上說偈品」, 「十住品」 등의 원형이며, 화엄경의 성립 문제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고 밝히고 있다.

• 坂本幸男 「華嚴經と菩薩本業經との關係」 『華嚴教學の研究』 pp.301~322 平樂寺書店, 昭和31.

• 小林實玄 「華嚴本業經の意圖-華嚴大經の編纂に關して」 『印度學佛教學研究』 7-1, 昭和34.

• 高峯了州 「華嚴部の異出經典について」 『龍谷大學論叢』 273, 昭和2

• 香川孝雄 「如來興顯經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15-2, 昭和30.

• 鎌田茂雄 「究竟大悲經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 第12-2, 昭和39.

• 柴田 泰 「『究竟大悲經』と「臥輪禪師偈」」 『札幌大谷短期大學紀要』 14~15 合併號, 昭和56

• 山田龍城 「華嚴經類の道」 『大乘佛教成立史論序說』 京都, 平樂寺書店, 昭和33

• 木村清孝 「新出·七寺本『大方廣如來性起微密藏經』の研究」 『平成4·5年度 研究成果報告書』 平成6(1994)

木村清孝교수는, 『如來性起微密藏經』은 大本 『華嚴經』(60권본)의 名號品, 性起品에 해당하며, 역자에 대해서는 不明 이라고 했는데, 일본 名古屋에 소재 하고있는 七寺에서 이 경전의 筆寫本이 최근에 발견되었다. 지금 현재로서는 자료를 정리하고 大本 『華嚴經』 원본과 글자상의 同異를 비교하고 있는 것에 불과하다.

3.3. 『華嚴經』의 제목에 대한 연구

경의 제목은 경의 내용과 사상을 집약해서 표현한 것이므로 글자 한자 한자가 갖는 의미는 매우 다양하고 중요하다. 뿐만아니라, 경의 제목이

17) 木村清孝박사: 앞의 책 pp.34~45.

붙여지기까지의 과정과 경의 이름이 일반 사람들 사이에 불리워지고 膾炙되면서 전달해주는 인상은 경의 가치마저 인상 지워주는 효과를 갖는다.

이러한 중요성때문에 경의 이름에 대한 연구는 古來로 많은 학자들에 의해서 꾸준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 川田熊太郎 「佛陀華嚴」 『華嚴思想』所收, 法藏館, 昭和35

川田熊太郎박사의 위 책은 『華嚴經』의 제목에 대하여 여러 문헌을 대조하여 설명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여기에서는 智儼의 『搜玄記』, 法藏의 『探玄記』, 澄觀의 80권 『華嚴經』의 註釋書인 『大方廣佛華嚴經·疏』¹⁸⁾와 『西藏大藏經總目錄』¹⁹⁾에 나오는 티벳(Tibet)어로 된 「Buddha-avatamsaka-nāma-mahayana-Sūtra」, 그리고, 『至元錄』²⁰⁾의 「Buddha-avatamsaka-nāma(vai)pulya-mahayana-Sūtra」의 표제들을 참고 하고 있다.

- 渡邊海旭 「華嚴經の梵名に就いて」 『壺月全集』上, 330항이하. 『宗粹雜誌』, 明治36

「華嚴經の梵名に就いて」는 화엄의 원래의 제목은 「avatamsaka」라기 보다는 「Gaṇḍavyūha」가 『華嚴經』의 총칭이며, 동시에 「入法界品」의 별명이기도 하다고 논술하고 있다.

- 荻原雲來 「華嚴經題目の研究」 『荻原雲來文集』 pp.482-492

「華嚴經題目の研究」도 마찬가지로 渡邊海旭이 지적한대로 「Gaṇḍavyūha」가 『華嚴經』의 총칭이며, 동시에 「入法界品」의 별명이기도 하다는 사실을 그대로 인정하고 있다.

- 中村元 「華嚴經の成立史的意義」 『華嚴思想』, 法藏館, 昭和35

中村元박사는 渡邊海旭의 학설을 인정하면서 '화엄경의 원래 명칭은 「Gaṇḍavyūha」 였던 것같다고 하고 있다.

18) 『大方廣佛華嚴經疏』 大正藏35, 524 b.

19) 『西藏大藏經甘殘爾勘同目錄』 pp.288, 大谷大學圖書館 所藏.

20) 『至元錄』, 昭和法寶總目錄 제2, p.190.

- 山口益 「華嚴經唯心偈の印度的訓詁」 『大谷學報』28-3, 昭和24
- 環部 建 「華嚴という語について」 『大谷學報』49-1, 昭和44
『佛教語の研究』, 東京, 文榮堂, 昭和50

「華嚴という語について」에서는 기본적으로 渡邊海旭의 학설을 기반으로 하여 「Gaṇḍavyūha」가 『화엄경』 원래의 제명이라고 하는데 동의하기 보다는, 『西藏大藏經總目錄』에 나오는 티벳어 「Buddha-avatamsaka-nāma-mahayana-Sūtra」에서 원래의 제명을 찾는 것이 타당하다는 견해를 제시하고 있다.

- 原 實 「Gaṇḍavyūha 題名考」 『インド思想と佛教』所收, 昭和48

인도 문학이 전공인 原實박사의 「Gaṇḍavyūha 題名考」는 언어학, 어원학적인 입장에서 「Gaṇḍa」라는 말이 희곡에서 잘 쓰이는 술어로써 「Gaṇḍavyūha」라고 표제를 붙인 것은 「이야기의 대단원을 눈앞에 두고 이야기 되는 “중결어의 유기적 배합”에 해당 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결국, 「Gaṇḍavyūha」는 「入法界品」 하나만을 가리키지 않고, 『화엄경』 전체를 지칭 한다는 새로운 견해이다.

4. 화엄사상에 관한 연구

〈華嚴思想이란?〉

「華嚴思想」은 위에 소개한 『華嚴經』을 중심으로 형성된 사상을 말한다. 이 경은 佛陀가 成道한후 최초로 설법한 내용이며, 正覺의 내용인 「緣起」의 세계를 그대로 나타내고 있다. 화엄의 연기는 「如來性起品」과 「十地品」, 「入法界品」의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唯心緣起」 사상을 말한다. 유심사상은 「唯識思想」으로부터 많은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으며, 중국 화엄교학 형성에 지대한 역할을 한 「地論宗」, 「攝論宗」의 心識說의 영향

을 받아 화엄교학의 중심사상인 「法界緣起說」로 발전하였다. 따라서, 「화엄사상」은 「화엄교학」과 구별되며, 대본 화엄경이 역출되면서 부터는 경의 내용과 사상을 지칭하게 된다. 예를들면, 중국에서 전통 화엄종 계보에는 속하지는 않으나, 『화엄경』을 중심으로 연구한 李通玄 長者(635~730)의 사상은 「華嚴思想」이 되는 것이다. 이 글에서는 李通玄에 관한 연구자료는 생략하기로 하며, 관련 자료는 다음장에 나오는 曹潤鎬선생의 논문을 참조하기 바란다.

4.1. 화엄사상 전반에 관한 연구

- 脇谷摎謙 『華嚴經要義』 京都, 興教書院, 大正9

『華嚴經要義』는 『화엄경』에 대한 해설·강의서로써 근대 화엄경 연구의 개척자 이기도한 脇谷摎謙이 60권본 『화엄경』을 각품마다 평이하게 해설한 것이다. 권말에는 저자 자신이 잡지에 기고한 「賢首大師の空論」, 「華嚴と禪とを結び付ける經典」, 「靈辨及び靈祐の華嚴經疏」 등과 같은 귀중한 화엄관계 논문이 실려있다. 또, 遼·금시대의 불교사상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당시 불교사상의 주류는 화엄사상이며, 대표적인 화엄 사상가로서 鮮演을 들고 있다. 부록에 수록 되어있는 논문들은 당시의 상황을 잘 알수 있는 좋은 자료들이다.

- 脇谷摎謙 「華嚴經の思想及び信仰」 『現代佛教』 5-50, 昭和3
- 湯次了榮 「藏中に於ける華嚴經の地位」 『六條學報』 134/135, 大正1
- 佐佐木月樵 「華嚴聖歌」 『日本文化經典』 第2, 大正10

佐佐木月樵의 『華嚴聖歌』는 탁월한 예술적 소질과 화엄경에 관한 깊은 이해의 바탕위에 화엄경에 내포되어 있는 예술성을 연구한 것으로, 大正시대에 다른 어디에서도 찾아볼 수 없었던 독특한 연구로 평가 되었다.

- 同 著書 『華嚴經の新らしい見方』 『佐佐木月樵全集』 제5所收, 大正12
『夜摩天宮會解說』 京都, 護法觀, 大正9

論文 「華嚴經に於ける時空の表現と繪畫」 「佛教と文化」,
『佐佐木月樵全集』 제5所收, 大正12

佐佐木月樵의 「佛教と文化」는 제1장:華嚴經と藝術的表現, 제2장:華嚴文化, 제3장:華嚴の女性と貪愛緣起, 제4장:華嚴の所有觀念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들 논문은 한결같이 화엄사상에 대한 깊은 이해를 바탕으로 화엄의 예술성을 극명하게 잘 드러내 보이고 있다.

- 山邊學習 『華嚴經の世界-人生修行の旅-』 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上下合本, 昭和15, 昭和50년 개정판 출판(鈴木學術財團 『パドマ叢書』 4, 上下2책, 昭和39)

佐佐木月樵의 계통을 계승하여 「入法界品」의 내용에 대해 本書는 문학적인 시각을 가지고 접근 하였으며, 일반 독자들도 이해하기 쉽도록 꾸몄다. 경을 문학적으로 잘 묘사하고 있는점에서 연구서라고 하기보다는 문학작품이라고 하는편이 더 좋을 정도이다.

- 吉祥眞道 『平易に説いた華嚴經』 東京, 中央出版社, 昭和3
- 龜谷聖馨 『華嚴大經の研究』 東京, 萬里閣, 昭和6

『華嚴大經の研究』는 『화엄경』의 종류, 『화엄경』관, 『화엄경』의 지위등을 중심으로 연구한 화엄경의 종합적 연구서이다.

- 龜谷聖馨 『華嚴聖典研究』 東京, 寶文館, 大正14
「華嚴哲學概論」 『哲學雜誌』 29-324, 大正3
「華嚴經典の哲學的價値」 『無盡燈』 17-19, 大正1
「釋尊と華嚴聖典」 『東亞之光』 9-2, 大正3
「華嚴聖典と佛教藝術」 『中央佛教』 4-1·2, 大正9
- 花山大安 『華嚴經普賢行願品講義』 昭和4
- 河野法雲 『華嚴經講義』 『大藏經講座』 제4권, 昭和8
(復刻版) 東京, 名著出版, 昭和51

河野法雲박사는 京都 高倉學寮의 一蓮院 秀存師의 제자로써, 당시 화엄학 연구에 새로운 방향을 개척한 선두주자이다. 위의 『華嚴經講義』는 화엄경의 주석서인 『探玄記』를 중심으로 하여 화엄경의 작품을 해설하고,

경의 특색과 요지를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있다.

- 河野法雲 논문 「華嚴教理史-華嚴經の特質-」 『佛教史學』2-11, 大正2
- 河野雲集 「華嚴經菩薩明難品について」 『大谷學報』24-1, 昭和18
- 金子大榮 『華嚴經の綱要』 『日本宗教講座』제8권, 昭和9
『華嚴經概說』 京都, 全人社, 昭和23
『普賢行』 『佛教の諸問題』제5편 所收, 東京, 岩波書店,
『華嚴經七處八會の綱要』 『無盡燈』11-11, 明治39, 『無盡燈』
12-3-4, 明治40
- 宮嶋資夫 『華嚴經』 世界聖典を語る叢書제3권, 昭和10. (再版) 大東出版社,
昭和53

宮嶋資夫의 『華嚴經』은 저자가 참선 수행을 통한 체험을 바탕으로하여 화엄의 이치를 설명하였다.

- 海潮音寺五郎 『人生遍路-華嚴經-』 東方雙書1, 京都, 法藏觀, 昭和32
- 坂本幸男 『佛陀の智慧-華嚴經講話-』 京都, 平樂寺書店, 昭和31
『永遠の世界觀·華嚴經』 筑摩書店, 昭和40
『華嚴經とその實踐』, 坂本幸男論文集, 第3 『佛教-論理と實踐-』
所收, 東京, 大東出版社, 昭和56
『華嚴經における人間觀』 日本佛教學會年報33, 昭和43
- 高峯了州 『般若と念佛-普賢行願品論攷-』 京都, 永田文昌堂, 昭和25
『普賢行願品解釋の問題』 『南都佛教』1, 昭和29
『如來出現思想華嚴經結構意圖』²¹⁾ 龍谷大學學報331, 昭和16
『佛教の根本問題』所收, 東大寺教學部, 昭和51
- 土橋秀高 『華嚴經淨行品について-戒律思想のながれから』 『佛教學研究』16·
17合併號, 昭和34
- 末綱恕一 『華嚴經の世界』 東京, 春秋社, 昭和32.

수학자의 입장에서 화엄사상을 정리한 末綱恕一의 『華嚴經の世界』는 화엄경에 대한 해설과 화엄사상에 대한 설명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책의 특징은 제7장 「華嚴の數論」에 잘 나타나 있다.

21) 이 논문에서는 여러 출현의 의의를 먼저 『阿含經』을 인용하여 설명하고, 최후에 『여래출현품』에서 性起思想을 살펴보면서 화엄경 사상의 근본을 설명하고 있다.

末綱恕一 논문 「佛教における數理觀」 『佛教の根本眞理』所收, 東京,
三省堂, 昭和31

- 兒山敬一 「華嚴經·如來光明闍品の數理-その方法論的な序説-」, 『印度學
佛教學研究』10-1, 昭和37
- 兒山敬一 「華嚴經における數理的なもの(2)」 『印度學佛教學研究』9-1,
昭和36

수학적인 원리로 화엄경 사상을 파악하려는 경향이 앞에 언급한 수학자 末綱恕一로 부터 시작하여 상당한 관심을 불러 일으키게 되는데, 이때를 즈음하여 兒山敬一의 위와 같은 논문이 발표되었다.

- 川田熊太郎監修, 中村元編輯 『華嚴思想』 法藏館, 昭和35

『華嚴思想』은 화엄사상 연구사에서 처음으로 여러 전문가들이 『화엄경』을 중심으로 불교철학 연구의 지적 탐구 방법을 제시한 화엄사상에 관한 연구서다.

- 中村元 「華嚴經の思想史的意義」, 위의 『華嚴思想』에 수록되어 있다.
中村元選集, 제9권 『東西文化の交流』, 東京, 春秋社, 昭和40에도 수록.

『華嚴經の思想史的意義』는, 인도 철학, 불교학이 전공인 中村元박사가 경의 성립시기와 장소 뿐만아니라, 中觀思想과의 연관성과 진리관등에 대해 해박한 식견을 동원하여 다양하게 언급하고 있는 논문이다.

- 平川彰 「華嚴經に見られる初期大乘佛教徒の宗教生活」 위의 『華嚴思想』에
수록.
『華嚴經の世界』 『在家佛教』327號所收, 1981
『華嚴經の戒と三趣淨戒』 『初期大乘佛教の研究』所收, 東京, 春秋社,
昭和43
- 小林圓照 「メグハシュリ-比丘の法門-ガンダウユ-ハの思想的研究のための
覺え書」 『禪學研究』52, 昭和37
『サーガラ·メグハ-比丘の法門-ガンダウユ-ハの思想的研究のための
覺え書-その2-』 『禪學研究』53, 昭和38
- 山田亮賢 「華嚴經のこころ」 『路傍の寶藏』所收, 京都, 文榮堂, 昭和42
『華嚴經における寂滅道場と祇園精舍-法藏の解釋を主として-』

佛教學セミナー-4, 昭和41

- 玉城康四郎 『永遠の世界觀華嚴經』 現代人の佛教, 東京, 筑摩書房, 昭和40
「華嚴經夜摩天宮菩薩說偈品における[心佛衆生]の問題」 『心把握の展開』所收, 東京, 山喜房佛書林, 昭和36
「華嚴經」 『現代佛教講座』第5卷所收, 東京, 角川書店, 昭和30
「華嚴經の人生觀·世界觀」 『女性佛教』6-11, 昭和36
「華嚴經の眞理」, 『理想』所收, 理想社, 1983
- 坂本幸男 「華嚴經における人間觀」 『日本佛教學會年報』 제33호, 昭和43
- 増田英男 「華嚴經における空觀の-考察-とくに般若心經との關連にお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18-1, 昭和44
「華嚴經における空觀の-考察(承前)-とくに般若心經との關連にお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19-1, 昭和45
「華嚴經における大悲方便」 『印度學佛教學研究』20-1 昭和46
- 鍵主良敬 「東アジアに生きた華嚴經」 『理想』所收, 理想社, 1983
「華嚴における佛の光明について(上,下)」, 『佛教學セミナー』第6/7號, 昭和42/43
「華嚴經における無性の意味」 『印度學佛教學研究』18-1, 昭和44
「華嚴經における緣起と法界」 『東洋學術研究』13-3, 昭和49
- 山田亮賢 「華嚴經における文殊菩薩」 『大谷學報』47-3, 昭和42
- 鎌田茂雄와 上山春平가 共同으로 출판한 연구서,
『無限の世界觀[華嚴]』 佛教の思想6卷, 角川書店, 昭和44
- 中山延二 『華嚴哲學素描』 京都 百華苑, 昭和53
- 木村清孝 『華嚴思想史』 京都, 平樂寺書店, 1992
「華嚴經宗趣論の歴史と意味」 『印度學佛教學研究』19-1 昭和45
- 福原亮嚴 「轉の思想-華嚴を中心として-」 『印度學佛教學研究』19, 昭和45
- 平岡定海 「華嚴經における須彌山思想の受容-大佛連辨毛彫の思想史的背景-」 『大手前女子大學論集』 제5호, 昭和46
- 林 憲法 「華嚴經の女性觀」 『法然淨土教と現代の諸問題』所收, 東京, 百華苑, 昭和46
- 木南卓一 『華藏世界品垂示』 慈雲尊者法語集, 三密堂, 昭和46
- 増田英男 「華嚴經における大悲方便」 『印度學佛教學研究』20, 昭和46
- 中村 薫 「華嚴經における-異の問題」 『印度學佛教學研究』23-1, 昭和49
「華嚴經における信滿成佛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4-2, 昭和51

「華嚴經における魔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7-1, 昭和53

- 鹽入良道 「華嚴經禮識儀の構成」 『大正大學研究紀要』62, 昭和51
- 福原蓮月 「華嚴經における救濟觀」 『印度學佛教學研究』25-2, 昭和52
- 津田眞一 「釋尊の宗教と華嚴」 『理想』所收, 理想社, 1983
- 稻岡智賢 「華嚴思想における過去の義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30, 昭和56
- 赤尾榮慶 「華嚴經にみえる聲聞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31-2, 昭和58

4.2. 業思想 연구

- 福原亮嚴 「華嚴における業の問題-有部の業說と比較して-」 『印度學佛教學研究』15-1, 昭和1966
- 山田亮賢 「華嚴經に於ける業の世界」 『大谷學報』35-4, 1956
- 鍵主良敬 「華嚴における業性の論理」 『佛教學セミナー』20, 1974
- 中村 薫 「華嚴經における如來の三業について (1)」 『印度學佛教學研究』28-1 昭和54
(2) 『印度學佛教學研究』29-1 昭和55
(3) 『印度學佛教學研究』30-1 昭和56

4.3. 「十地品」 사상 연구

「十地品」의 사상은 화엄사상의 핵심이면서 가장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으므로 별도로 소개해본다. 이미 언급한 『華嚴經』의 성립 과정과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있다. 『華嚴經』이 주로 「十地品」과 「入法界品」, 「性起品」을 중심으로 하여 편찬 되었다고 해도 지나치지 않을 정도로 이들 품이 화엄사상의 중핵을 이루고 있다.

- 須佐晋龍 「華嚴經十地品の研究」 『現代佛教』69.70合併號, 昭和5
- 高峯了州 「華嚴十地品について」 『龍谷大學論叢』285號, 昭和4
- 久野芳隆 「菩薩十地思想の起源, 展開, 及び内容」 『大正大學學報』6-7 (荻原雲來博士還曆記念祝賀論文集), 1930

- 野上宗人 「菩薩位の發達-特に十地思想研究-」 『野上宗人遺稿』 大正大學內刊行會, 昭和9
- 月輪賢隆 「西藏文〔十地經序註〕に就いて」 『宗教研究新』12-5, 昭和10
『佛典批判的研究』所收, 京都, 百華苑, 昭和46
- 日野泰道 「十地經論における深觀原典解明」 『印度學佛教學研究』4-2, 昭和31
- 川田熊太郎 「華嚴十地の二節性に就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6-2, 昭和33
- 玉城康四郎 「十地經における三界唯心の諸問題」 『心把握の展開』 所收, 山喜房佛書林, 昭和36
- 鍵主良敬 「十地經論における阿頼耶識と自性清淨心-地論宗心識說成立基盤への一考察」 『大谷學報』44-4, 昭和40
- 川那部保 「十地經における菩薩道と緣起について-三界唯心と衆生-」 『東京教育大學文學部紀要』55(哲學/倫理學研究)
- 寺田正勝 『華嚴經十地品』 京都, 法藏館, 昭和36

『華嚴經十地品』은 십지중 初地 「歡喜地」에 대하여 분석적으로 설명하고 있다.

- 松本省二 「十地經中の衆生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16-1, 昭和42
- 伊藤瑞敏 「十地經におけるBhūmiの語義」 『印度學佛教學研究』17-1, 昭和43
「十地經におけるDaśa-Bhūmiの意義」 『印度學佛教學研究』19-1, 昭和45
「十地經におけるJñāna-Bhūmi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0-1, 昭和46
「十地諸本および十地思想に關する近時の研究成果, そして研究課題の所在について-十地の構成内容の基本的特相」, 『三藏集』4, 東京, 大東出版社, 昭和53
「十地經における十地の名稱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1-1, 昭和47
「華嚴・十地說の心識說について」(上・下), フィロソフィア63・64, 昭和50・51
「十地經基本内容の體系的構造その1」 『法華文化研究』2호, 昭和51
「十地經の序品について」 『法華文化研究』제5・6호, 昭和54
「華嚴十地經における Saddharma」 『印度學佛教學研究』27-2, 昭和54
- 平野修 「菩提心について-初歡喜地の問題」 『佛教學セミナー』12, 昭和45
「第5・第6 菩薩地に對する世親註の骨格」 『佛教學セミナー』17, 昭和48
- 丘山新 「『十地經』の思想的研究-十地の結節點-」 『印度學佛教學研究』25-1, 昭和51
「『十地經』〔三界唯心〕の原典解明」 『佛教學』5, 昭和53
- 林賢司 「歡喜地における發菩提心についての一考察」 『印度學佛教學研究』28-

1, 昭和54

「『十地經』序品の研究-特に〔信〕について」 『佛教學研究』37, 昭和56

『印度學佛教學研究』29-2, 昭和56

- 大南龍昇 「十地經論における行相の構造」 『宗教研究』56, 昭和57
- 佐藤隆賢 「『華嚴經』十地品-極無自性心について」 『大正大學大學院研究論集』6, 昭和57
- 吉津宜英 「華嚴教學における生死觀序說-十地品第六現前地の註釋を中心として」 『日本佛教學會年報』46, 昭和55

* <영문으로 쓰여진 십지 사상관계 논문>

- Inagaki Hisao 「The Adoption of the Buddha's Life Parttern in the Ten-Bhūmi Systems」 『印度學佛教學研究』11-2, 昭和38
- 齋藤光純 「Bodhisattva-caryā-prasthāva-daśa-bhūmi-iśvāranāma mahāyāna-sūtra-rantna-rajā」 『大正大學研究紀要』52, 昭和42

4.4. 「如來性起品」에 관한 연구

- 西尾京雄 「佛敎經典成立史上における華嚴如來性起經について」 『大谷大學研究年報』2, 昭和18
- 高峯了州 「如來と世界-華嚴經如來性起品の研究」 京都, 全人社, 昭和19

高峯了州박사는 이 논문에서 화엄경의 구상 의도와 관련하여 밝히고, 「여래성기품」의 개요 및 내용을 자세히 해설 하고 있다.

- 香川孝雄 「大乘佛敎思想の研究-華嚴經如來性起品について」 『佛敎論叢』11, 昭和41
- 伊藤瑞敏 「華嚴・如來性起經の成立過程-その第1段階と法華經との對比-」 『大崎學報』122, 昭和42
- 鍵主良敬 「如來性起品の研究」 『大谷大學研究年報』25, 昭和47
「如來性起經典の怪-その正體をめぐる常盤・高峯說の疑義-」 『佛敎學セミナー』18, 昭和48
- 高崎直道 「如來藏思想の形成」 東京, 春秋社, 昭和49

『如來藏思想の形成』에서는 「寶性論」과 「十地經」과의 관계 및, 寶性論과 性起經과의 연관관계, 「十地」와 「種性」, 如來出現과 如來種性, 「法界」와 「唯心」과의 관계등에 대해 풍부한 근거 자료를 제시하면서 심도 있게 논하고 있다.

- 高崎直道 翻譯 「如來藏系經典」, 中央公論社, 昭和50

『如來藏系經典』은 앞에서 소개 한바가 있으므로 자세한 내용은 생략한다. 北京版 「西藏大藏經」 즉, 티번어로 번역된 如來藏系 경전들중 『如來藏經』이 포함되어 있다.

4.5. 「入法界品」 사상연구

「入法界品」사상은 『華嚴經』의 전체 내용중 최후를 멋지게 장식하는 장르로써, 이미 앞에서 범본 「入法界品」에 대한 자료 소개와 함께 성립문제를 설명 한바가 있다. 여기에서는 입법계품의 사상에 관한 연구논문을 중심으로 연구 성과를 소개하고 연구방향을 함께 생각 해보기로 한다.

- 高崎直道 『如來藏思想の形成』, 東京, 春秋社, 昭和49

高崎直道박사의 위 책은 「如來性起思想」뿐만 아니라, 「입법계품」의 사상 「生如來家」, 「種姓論の特色と本經の位置」등에 대해서도 상세하게 논하고 있다.

- 千瀉龍祥 「Barabudur 大塔回廊の浮彫と華嚴經入法界品」 『印度學佛敎學研究』8-1, 昭和35
- 馬場昌平 「入法界品における幻智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12-2, 昭和39
- 木村清孝 「華嚴思想家と反道行」 『印度學佛敎學研究』17-2, 昭和43
- 彦坂 周 「華嚴經入法界品と南インドの地名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41, 平成3

4.6. 화엄경 신앙 연구

- 龜川教信 「華嚴世界と西方極樂—文字上に表現せられたる—」 『六條學報』223, 大正9
- 脇谷搗謙 「華嚴經思想及び信仰」 『現代佛敎』5-50, 昭和3
「蓮華藏世界」 『六條學報』111, 明治41
- 鎌田茂雄 「華嚴齋會の成立について」 『中國華嚴思想史の研究』所收 pp.42~47, 東京大學出版會1965
- 大谷光照 「隋唐佛敎の儀禮—特に法會について」 『史學雜誌』第46篇第10.11號.
『唐代の佛敎儀禮』에서도 자세히 언급하고 있다. 有光社, 昭和12
- 山崎 宏 「支那中世佛敎の展開」 清水書店, 昭和17
- 濱口惠璋 「華嚴經における他力義」 『六條學報』12, 明治35
「華嚴經の文學觀」 『六條學報』83, 明治41
- 湯次了榮 「淨土敎として見たる華嚴經」 『六條學報』85, 明治41
- 稻垣最三 「大信より見た華嚴經」 『大乘』5, 9-11, 大正15

稻垣最三의 「大信より見た華嚴經」에서는 화엄경에 나타난 念佛三昧와 往生思想, 그리고 화엄 祖師들의 淨土觀을 심도있게 논하고 있다.

- 香月乘光 「華嚴經壽命品の彌陀淨土說とその展開」 『佛敎文化研究』2, 昭和27

香月乘光의 위 논문은 화엄경에 나타난 彌陀淨土說의 중요성을 논하고, 화엄 祖師들의 彌陀淨土觀과 華藏極樂 同體說을 논하고 있다.

- 宮地廓慧 「菩薩道における他力思想の展開—「十地經」を中心として—」 『印度學佛敎學研究』6-2, 昭和33
- 福原蓮月 「華嚴經における救濟觀」 『印度學佛敎學研究』25-2, 昭和52
- 栗田善如 「華嚴經十地品における念佛」 『東洋學研究』1, 東洋大學, 昭和40
- 福原亮嚴 「華嚴經における念佛」, 『宗教研究』47-3, 昭和49
- 中村 薫 「華嚴淨土義」(1) 『印度學佛敎學研究』25-1, 昭和51
「華嚴淨土義」(2) 『印度學佛敎學研究』26-1, 昭和52
- 橘惠勝 「華嚴經の佛身論」 『新佛敎』9-5, 明治41

- 泉芳環 「華嚴經に於ける善財童子に就いて」 『日本佛教學會年報』7, 昭和16
- 松永大學 「華嚴經の善財童子—求道の旅—」 『相愛論集』5-1, 昭和33
- 山田亮賢 「華嚴の善知識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9-2, 昭和36
「華嚴經における彌勒について」 『大谷學報』43-4, 昭和39
「華嚴經於ける文殊菩薩」 『六條學報』47-3, 昭和42
- 李杏九 「韓國佛教における華嚴信仰の展開」 『印度學佛教學研究』31, 昭和52

李杏九스님은 현재 동국대학교 교수로 재직중이시며, 본 논문은 일본 유학시절에 쓴 논문이다.

4.7. 화엄사상을 통한 비교사상 연구

다른 정전이나 종단·학과와 화엄경과의 관계를 비교 연구 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다. 『화엄경』이 분량면에서나 사상적인 면에 있어서 방대 하기때문에 응용의 범위가 넓으며, 그만큼 비교 분석하기에 충분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할 수 있기 때문이다.古來로부터 화엄을 제대로 공부하고 나면, 불교 뿐만아니라 유교, 도교에 대해서도 통하지 않음이 없다고 하였음도 그 때문이다. 이는 오늘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통하는 말로써, 화엄사상의 응용범위는 무한히 넓기때문에 思考構造가 다른 종교나 사상과 비교 연구 하는데에 더할나위없는 좋은 자료가 될수있다. 그래서 어떤 철학자는 '화엄의 無限속에서 현대 철학의 새로운 해석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 脇谷摺謙 「華嚴宗より見たる龍樹と世親」 『六條學報』35, 明治37
- 脇谷摺謙 「華嚴と禪とを結び付ける經典」 『四明餘霞』313, 明治45
『華嚴經要義』에도 수록되어 있음, 京都, 興教書院, 大正9
「華嚴の性惡論」 『六條學報』37, 明治37
- 龜谷天尊 「華天二宗教理の契合点」 『東洋哲學』12-9, 明治38.
「華天二教の比較評論」 『新佛教』5-6, 明治37
「華嚴教と天台教の契合点」 『無盡燈』19-2, 大正3
- 湯次了榮 「禪より見た華嚴」 『禪宗』7-8, 明治43
「清涼の性惡說を論じた華天(화엄과천태)의根本差別に及ぶ」

- 『六條學報』111, 明治44
- 伊藤古鑑 「華天の毘盧遮那觀」 『高野山時報』10-13, 大正3
- 河野法雲 「華嚴法華二經の交渉」 『大崎學報』31, 大正2
「華嚴經と淨土教との關係」, 『大谷學報』10-1, 昭和4
「華嚴列祖の淨土教」 『無盡燈』11-1·3·4, 明治39
- 齋藤唯信 「華嚴における淨土教」 『無盡燈』2-1, 明治30
- 龜谷天尊 「華嚴哲學中の宗教的安心について」 『東洋哲學』12-11, 明治38
- 上山任介 「唯心論として華嚴哲學」 『東洋哲學』25-9, 大正7
「認識對象として華嚴哲學」 『東洋哲學』26-8·11·12, 大正8
- 伊部良全 「華嚴經と涅槃經」 『四明餘霞』318, 大正1
- 龜谷聖馨 「華嚴哲學と泰西哲學」 東京, 三省堂, 大正12
『華嚴哲學と相對性原理』 東京, 名教學會, 大正11
『佛陀最高の哲學とカントの哲學』 東京, 寶文館, 大正13
- 望月信亨 「華嚴諸家の淨土及び念佛觀」 『中國淨土教理史』所收, 京都, 法藏館, 昭和17
- 高峯了州 「華嚴と禪との通路」 『日本佛教學會年報』 昭和28
- 鈴木大拙 「禪と華嚴の教學」 『華嚴の研究』 pp.11~13, 昭和
- 小林實玄 「華嚴經の組織に於ける普賢經典の位置—華嚴經に留意して—」 『印度學佛教學研究』8-1, 昭和35
- 河村孝照 「大乘涅槃經と華嚴經」 『東洋學研究』5, 東洋大學, 昭和46
- 石井修道 「宗鏡錄におよぼした澄觀の著作の影響について—永明延壽の教禪—致說成立過程の疑問—」 『印度學佛教學研究』17-2, 昭和43
- 坂本幸男 「非情に於ける佛性の有無について—特に湛然·澄觀を中心として—」 『印度學佛教學研究』7-2, 昭和34
- 苗村高綱 「天台の華嚴觀として四種華嚴」 『佛教學研究』16·17 合併號, 昭和34
- 田村芳郎 「天台·華嚴の論爭」 『鎌倉新佛教思想研究』所收, 京都, 平樂寺書店, 昭和40
- 中村薫 「華嚴淨土論」(1) 『印度學佛教學研究』25-1, 昭和51
「華嚴淨土論」(2) 『印度學佛教學研究』26-1, 昭和52
- 矢吹慶輝 「華嚴宗の三階教觀」 『三階教の研究』所收, pp 350~357
- 福原亮巖 「華嚴經の譬喩表現」 『佐藤古稀記念論集』 昭和47
「華嚴における業の問題—有部の業說と比較して—」 『印度學佛教學研究』15-1, 昭和1966
- 平岡定海 「華嚴經と梵網經の差異について—大佛蓮辨毛彫の思想史的背景—」

『大手前女子大學論集 제9호, 昭和50

- 香月乘光 「華嚴宗に於る華嚴極樂同體說」 『佛教大學學報』28, 昭和28
- 稻桓眞我 「華嚴より見たる傳教弘法」 宗教界9-4, 大正2
- 日比宜正 「湛然に及ぼされた影響——即一切に關する考察——」 『唐代天台學研究』所收, 山喜房佛書林, 昭和40
- 稻荷日宜 「華嚴經における一乘」 『法華經一乘思想の研究』所收, 東京, 山喜房佛書林, 昭和50
- 木下富夫 「性具と性起」 『高野山大學佛教學論文集』昭和54
- 伊藤瑞猷 「華嚴思想と法華思想」 中村瑞隆編 『法華經の思想と基盤』所收, 京都, 平樂寺書店, 昭和55
- 秋田光兆 「天台大師智の華嚴經觀」 『大正大學大學院研究論集』4, 昭和55
- 結城令聞 「華嚴・天台兩宗の教學的交渉—法華・華嚴兩經に對する兩家よりの相互對辯—」 『佛教思想史』4, 京都, 平樂寺書店, 昭和56
- 池田魯參 「湛然教學における頓漸の觀念—澄觀教學との對論—」 『南都佛教』47, 昭和56

〈密教와 화엄사상의 관계에 대한 연구〉

- 三崎良周 「純密と雜密」 『大正大學研究紀要』52, 昭和42
- 長部和雄 「則天武后時代密教」 『密教文化』12, 昭和50

〈三論宗에서 바라본 화엄사상〉

- 菅野博史 「吉藏の三種法輪說について」 『日本佛教文化研究論集』2, 昭和56
「吉藏における三種菩薩論—直往菩薩と廻小入大菩薩論」 『印度學佛教學研究』31, 昭和57

4.8. 普賢行사상 연구

- 高峯了州 「普賢行—歷史形成の背景にあるもの—」 『龍谷學報』335, 昭和
- 龜川教信 「普賢行願思想の發展史的意義」 龍谷大學編 『佛教學論叢』, 京都, 平樂寺書店, 昭和19
- 鹽田義遜 「普賢行願と日本佛教」 『印度學佛教學研究』1-2, 昭和28

5. 화엄교학에 대한 연구

〈화엄교학이란?〉

「華嚴教學」은 중국에서 형성된 華嚴宗의 중심교리로써, 화엄종 제3조 賢首法藏(643~712)에 의하여 大成 되었다. 화엄교학의 특징은 독특한 敎判說로써 대표될 수 있는데, 화엄종에 앞서 法相宗에서 세운 8宗의 敎判說을 攝收하고, 개정하여 五敎十宗으로 「敎判論」을 제시하고 있는데 특징이 있다 하겠다. 이 「교판론」은 화엄교학의 대성자 賢首대사 法藏이 법상종을 크게 의식하면서 화엄교학의 절대적 우위성을 제시하기 위하여 세운 교판설이라고 알려지고 있다. 교판론에서 언급된 五敎十宗의 중심사상을 화엄교학의 개론서격인 『五敎章』에서는 「三聖同異義」, 「緣起因門六義」, 「十玄緣起無碍法」, 「六相圓融義」로 설명하고 있다.

이들의 정의만 간단히 소개하자면 다음과 같다.

- 一. 「三聖同異義(삼성동이의)」
 1. 변계소집성(遍計所執性—分別性)
 2. 의타기성(依他起性—依他性)
 3. 원성실성(圓成實性—眞實性)
- 二. 「緣起因門六義(연기인문육의)」
 1. 공유력부대연(空有力不待緣)
 2. 공유력대연(空有力待緣)
 3. 공무력대연(空無力待緣)
 4. 유유력부대연(有有力不待緣)
 5. 유유력대연(有有力待緣)
 6. 유무력대연(有無力待緣)
- 三. 「十玄緣起無碍法(십현연기무애법)」
 1. 동시구족상응문(同時具足相應門)
 2. 일다상용부동문(一多相容不同門)
 3. 제법상즉자재문(諸法相卽自在門)
 4. 인다라망경계문(因陀羅網境界門)
 5. 미세상용안립문(微細相容安立門)
 6. 비밀은현구성문(秘密隱顯具成門)
 7. 제장순잡구덕문(諸藏純雜具德門)
 8. 십세격법이성문(十世隔法異成門)
 9. 유심회전선성문(唯心回轉善成門)
 10. 탁사현법생해문(託事顯法生解門)
- 四. 「六相圓融義(육상원융의)」

1. 총상(總相-全體性) 2. 별상(別相-個別性) 3. 동상(同相-同一性)
4. 이상(異相-相違性) 5. 성상(成相-生成性) 6. 괴상(壞相-破壞性)

위의 『五教章』에서 언급 하고있는 중심사상 이외에, 「如來性起品」에 나타난 사상을 중심으로 한 「性起思想」이 매우 중요시 되고있다. 이들 사상을 중심으로 형성된 중국 화엄교학은 중국 및 한국, 일본등을 비롯한 東아시아 불교사상에 매우 큰 영향을 미치게 된다. 다음은 화엄교학에 대한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5.1. 개론서 및 논문

〈明治, 大正시대〉

- 藤谷還由 『華嚴學刊』 東京, 光隆館, 明治30

『華嚴學刊』은 明治, 大正시대에 쓰여진 것으로, 화엄교학 전반에 걸친 이해를 돕기 위한 일본 최초의 화엄학 개론서이다.

- 河野法雲·龜谷聖馨 『華嚴發達史』 東京, 名教學會, 大正2

『華嚴發達史』는 당시 학계의 거장이었던 河野法雲박사와 龜谷聖馨박사가 화엄종 교단과 각 종파에서 운영 하고 있던 대학 성격의 학교 (당시에는 寮라함)나 연구소에서 연구되어진 화엄학에 관한 자료를 집대성하여 역사학적 입장에서 펴낸 책이다.

이 책은 日本에서 전래되어 온 학풍을 계승하고 있으며 中國, 韓國, 日本등 삼국 화엄종의 역사에 대해서도 개괄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 湯次了榮 『華嚴大系』 (初版) 法林館, 大正4. (復刻版) 國書刊行會, 昭和58
『華嚴學概論』 龍谷大學出版部, 昭和10

龜谷聖馨박사는 철학자이면서 화엄학자 였기때문에, 화엄학을 철학적 입장에서 해석 해보인 연구서가 대부분 이다. 특히, 서양철학과 비교 연구한 것 중에 뛰어난 논문이 많이 있다.

『華嚴哲學研究』 東京 寶文館, 大正14

『華嚴哲學概要』 哲學雜誌29, 大正3

『華嚴聖典의 哲學的 根本問題』 東京, 名教學會, 大正10

- 佐佐木月樵 『大乘教學大乘華嚴教學』 東京, 松谷獎學會, 大正8

『大乘教學大乘華嚴教學』은 法藏의 저작인 妄盡還源觀, 五教章등의 원문과 함께 화엄교학 전반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하고있다.

- 齋藤唯信 『華嚴學綱要』 東京, 丙午出版社, 大正9
- 土田杏村 『華嚴哲學小論攷』 京都 内外出版, 大正11

本書에서 土田杏村박사는 철학도로서, 철학적 입장에서 화엄철학을 파악하고 있는데 『起信論』 사상과 관련시켜 연구한 내용은 독특한 면이 엿보인다.

〈昭和시대부터 현재까지〉

- 龜川教信 『華嚴學』 京都, 百華苑, 昭和24
『緣起構造』 全人社, 昭和19
- 鈴木大拙 『華嚴の研究』 法藏館, 昭和30. 鈴木大拙全集, 第5卷, 岩波書店, 昭和43

鈴木大拙박사는 화엄철학을 단지 대승불교 철학으로써 보고 있던 기존 불교학자들의 시각에서 탈피하여, 보다 넓고 다양하게 세계 사상사의 한 장으로 보아야 한다는 관점에서 연구 되어진 英文 논문들을 정리, 杉平義智가 번역 출판한 책이다.

- 坂本幸男 『華嚴教學の研究』 京都, 平樂寺書店, 昭和31

坂本幸男박사의 위 책은 慧苑의 『刊定記』가 法藏-澄觀을 중심으로한 화엄전통설에 밀려 인정되고 있지 못하고 있는 점을 시정 하는데 목적을 둔 勞作이다. 특히, 慧苑이 화엄교학의 대성자 법장의 直弟子임에도 불구하고, 『刊定記』에서 주장한 「教判論」이 澄觀의 『華嚴經疏(鈔)』에 의해 비판 받음으로 인해, 華嚴의 傳統 祖師에서 배척되는 불운한 결과를 당하고

있음에 대한 부당성을 지적하고, 慧苑의 위상을 화엄학계에 복귀시킬 목적으로 연구한 박사의 勞作이라고 할 수 있다.

- 玉城康四郎 『心把握の展開』 山喜房佛書林, 昭和36

本 論文은 玉城康四郎박사 특유의 비교론에 입각하여, 천태와 화엄의 교학사상을 중심으로 「一心」의 전개를 파악한 독특한 논문이다.

- 高峯了州 『華嚴と禪との通路』 奈良 『南都佛教』 연구會, 昭和31
- 高峯了州 『華嚴論集』 東京, 國書刊行會, 昭和51

高峯了州박사의 『華嚴論集』에는, 이제까지 제대로 정리가 되지 않았던 法藏의 제자 文超가 저작한 것으로 알려진 「『自防遺補集』殘簡」²²⁾과 澄觀의 『十二因緣觀門』등 귀중한 자료들이 수록 되어있어 자료적 가치가 매우 크다.

- 高峯了州 『華嚴思想史』 (初版) 京都, 百華苑, 昭和17. (改訂) 昭和38

『華嚴思想史』는 저자가 昭和 9년부터 11년까지 사이에 龍谷大學에서 불교학 특수 강의를 하기위해 기록해 두었던 노트를 기본 자료로 하여 華嚴敎學이 전개 되어온 역사적 배경을 화엄 전통설에 입각하여 설명한 종합적인 화엄학 연구서 이다. 한국과 일본의 華嚴敎學史도 언급 하고있다.

- 石井教道 『華嚴敎學成立史』 東京, 平樂寺書店, (石井教道博士遺稿刊行會) 昭和39

『華嚴敎學成立史』는 화엄 교학사에 대한 자료를 비롯하여 중국 화엄교학 성립에 관하여 체계적이고 상세하게 서술하고 있다.

- 鎌田茂雄 『中國華嚴思想史の研究』 東京大學出版會 昭和40

鎌田茂雄박사는 현재도 정열적으로 활동중에 있는 원로 연구가로, 화엄

22) 文超의 「『自防遺忘集』의殘簡」은 화엄의 실천전인 禪인 「華嚴觀」에 대하여 강하게 언급하고 있으며, 法藏의 저작으로 알려진 『妄塵還源觀』이 문초에 의해서 편집 되었을 가능성에 대하여 시사해주고 있는 華嚴 觀法의 연구에 매우 중요한 자료이다. 이 자료는 『金澤文庫資料全書, 佛典第二卷, 華嚴篇』에 수록되어 있다.

학 연구에 새로운 地평을 열었으며, 현대 화엄학의 연구 방향을 잡아준 거장이다. 『中國華嚴思想史の研究』는 澄觀의 화엄교학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기초 자료로써의 성격을 지니고있다. 이 책의 내용속에는, 澄觀의 화엄교학 사상의 형성이 중국 전통사상인 道家사상, 儒敎思想과 긴밀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또, 화엄종이 성립되기 이전에 성했던 僧肇의 『肇論』이라든지, 道生의 佛性論등의 영향이 있었다는 사실을 밝힘과 동시에, 地論宗, 攝論宗의 敎義, 敎理와의 관계에 대해서도 상세히 언급하고 있다. 또, 澄觀이후 宋代의 화엄학과 遼代의 밀교에 미친 화엄사상의 영향에 대하여 사상사적으로 연구 규명하려는 의도가 엿보인다. 그러나, 여전히 화엄학 연구는 사상사적으로 연구 해야할 과제가 많이 남아 있으며, 특히, 신라이후 교학의 전통이 화엄사상을 중심으로하여 형성된 한국에 있어 더욱 그러하다 하겠다.

- 鎌田茂雄 『中國佛教思想史研究』 東京, 春秋社, 昭和43

『中國佛教思想史研究』는 「華嚴思想史の諸問題」와 『中國華嚴思想史の研究』에서 언급하지 못했던 화엄사상의 형성과정과 관련하여 地論宗 (특히, 地論宗南道派의 淨影寺 慧遠), 天台宗, 三論宗등 타종과 학설과 비교, 검토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화엄학 연구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 鎌田茂雄 『華嚴の思想』 講談社, 昭和58
- 鍵主良敬 『華嚴敎學序說-眞如と眞理の研究』 東京, 文榮堂, 昭和43

鍵主良敬교수의 本 書는 鳩摩羅什 이래 불교 진리관의 유래와 화엄교학의 대성자 法藏이 바라본 진리관에 대하여 중점적으로 논술했었다.

-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史の研究』 春秋社, 昭和52

木村清孝교수는 현재 동경대 교수로써, 가장 활발하게 화엄학 연구를 하고 계신분 중의 한분이다. 『初期中國華嚴思想史の研究』는 교수의 학위 논문을 출판한 것으로, 法藏에 의하여 화엄교학이 대성되기 이전, 화엄학적 사유의 형성 경로와 화엄사상의 발달, 전개 과정을 당시의 시대적 상황과 연결하여 세밀하게 연구 하였다. 특히, 이 책은 智儼의 화엄사상이

중점적으로 연구되었으며, 智儼의 화엄사상을 제대로 파악 할 수 있는 대작이다.

- 木村清孝 『中國華嚴思想史』 平樂寺書店 1992

木村清孝교수의 위 책은 화엄사상을 연구함에 있어서 반드시 정리 되어야 할 내용을, 사상사적 관점에서 간명하게 정리 하였으며, 화엄학 연구 지망생들에게 연구의 방향을 제시 해주고, 권말에는 이 책의 내용과 관련 하여 게재 했던 교수의 논문 목록이 수록 되어있다.

- 吉津宜英 『華嚴禪の思想史的研究』 大東出版社, 1985
- 平川彰·梶山雄一·高崎直道 등 編 『華嚴思想』 講座大乘佛教3, 春秋社, 昭和58

5.2. 화엄교학 전반에 관한 연구논문

- 龜谷聖馨 「華嚴哲學概論」 『哲學雜誌』29-324, 大正3
- 高木俊一 『佛教概論』所收, 京都, 興教書院, 大正5

高木俊一の 『佛教概論』에 화엄학과 관련된 연구로써 「法界緣起論」, 「十身具足說」, 「華嚴宗の佛土」, 「一心法界觀」, 「華嚴宗行布圓融說」, 「五教十宗」 등이 실려있다.

- 境野黃洋 「華嚴宗」 『支那佛教史講話』 下卷421-611項, 東京, 共立社, 昭和4
「華嚴宗」 『佛教思想大系』 제1권, 『佛教研究法』所收, 大東出版社, 昭和16

境野黃洋박사의 본 책들에서는, 화엄종이 성립되는 과정을 규명 하기 위하여 화엄경류와 화엄사상 형성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것으로 생각되는 반야계 경전들에 대한 연구가 중점적으로 이루어졌다. 또, 화엄학자들에 대한 전기 및 화엄사상의 유행과정에 이르기까지 포괄적인 연구가 행해졌다. 특히, 화엄 전통설에 입각한 宗祖論에 대한 常盤大定박사 라던가 鈴木宗忠박사와의 논쟁은 화엄학의 사상적 연구 차원을 떠나 史蹟址 實査를

촉발하는 契機가 되기도 하였다. 위의 논쟁 내용은 뒤의 「華嚴傳統論」에서 언급하겠으니 참조바란다.

- 松原恭讓 「華嚴宗」 『日本宗教大講座』 第5卷, 東京, 東方書院, 昭和5

松原恭讓의 「華嚴宗」은 인도, 중국, 일본등 각각의 화엄종 계보를 정리 하였다.

- 脇谷搗謙 「華嚴宗綱要」 『佛教大學講座』 第4卷, 佛教年鑑社, 昭和8

「華嚴宗綱要」에서는 『화엄경』과 화엄종사, 화엄종의 교의등을 간결하게 정리하고있다.

- 宇井伯壽 「華嚴, 律, 涅槃」, 『天台, 華嚴の再興』, 「華嚴宗狀勢」, 『支那佛教史』, 宇井伯壽著作選集 第2, 大東出版社, 1966.
- 高峯了州 「華嚴哲學」 『佛教大學講座』 제6권, 佛教年鑑社, 昭和9

박사의 「華嚴哲學」은 화엄학의 기본적인 문제를 敎判을 중심으로 연구 하였다.

- 坂本幸男 「華嚴學の史的概觀」 『ピタカ』講座9, 昭和10
坂本幸男論文集 第2, 『大乘佛教の成立』所收, 大東出版社, 昭和55

박사의 「華嚴學の史的概觀」은 인도에서의 『화엄경』 原典에 관한 추적과 함께 중국 화엄종에 관하여 연구하고 있다.

- 坂本幸男 「佛教の本質論」 『宗教研究新』13-5, 昭和11
「經典解釋の方法論の研究」 『支那佛教史學』1-2, 昭和12
「華嚴學の中心思想」 『佛教』 제2권8, 昭和10
坂本幸男論文集 第2, 『大乘佛教の成立』所收, 大東出版社, 昭和55
- 道端良秀 「華嚴宗と法藏」 『中國佛教史』所收, 京都, 法藏館, 昭和14
- 龍山章眞 「華嚴宗」 『佛教諸宗概說』 京都, 法藏館, 昭和15
- 鎌田茂雄 「中國の華嚴思想」 講座/東洋思想 第6권, 『佛教思想』2, 中國的展開 pp.177~216, 東京大學出版會 昭和42

박사의 「中國の華嚴思想」은 화엄사상이 형성된 사상사적 배경과 화엄

사상의 특질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 鎌田茂雄 「華嚴宗」 『中國佛教史』所收, 岩波全書, 岩波書店, 昭和53
- 木村清孝 「華嚴教學」 『中國佛教思想史』所收, 東京, 世界聖典刊行協會, 昭和54
「華嚴宗の成立」 『講座·大乘佛教3 華嚴思想』, 春秋社, 昭和58
- 増永靈鳳 「華嚴の玄理」 『佛教の根本思想』所收, 東京, 學道社, 昭和31

増永靈鳳의 「華嚴の玄理」는 화엄철학을 처음 대하는 이들도 이해 할 수 있도록 알기 쉽게 소개한 화엄철학 지침서이다.

- 清水公照 「華嚴宗」 講座佛教6 『日本佛教の宗脈1』所收, 東京, 大藏出版, 昭和42

清水公照의 「華嚴宗」은 화엄경의 經題에 대한 설명과 화엄철학의 내용·구조를 설명하고, 화엄조사의 傳燈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 清水公照 「華嚴思想の現代的意義」 「華嚴經の組織」 「華嚴經とは」
『アジア佛教史·日本編1, 飛鳥·奈良佛教』所收, 東京, 交成出版, 昭和47

5.3. 因果 연구

- 脇谷摺謙 「華嚴の性惡論」 『六條學報』37, 1904
- 龜川教信 「華嚴教學に於ける因果研究」 『龍谷大學論叢』245, 1922
- 木村清孝 「華嚴教學に於ける因果問題」 佛教思想研究會編
『佛教思想3·因果』에 所收, 京都, 平樂寺書店, 昭和53

5.4. 緣起·性起 思想 연구

- 河野法雲 「華嚴の緣起·性起を論ず」 『無盡燈』12-5, 明治40
- 湯次了榮 「華嚴緣起論」 『六條學報』144·145, 大正2
- 龜川教信 「華嚴緣起·性起論」 『六條學報』201·203, 大正7·8
「念劫融卽の反省」 『龍谷大學論叢』285, 昭和4

- 中川惠弘 「華嚴における機根論に就て」 『叡山宗教』4-2, 大正12
- 龜谷聖馨 「華嚴聖典における十玄緣起無碍法門」 『密教研究』4-13, 大正9·12
- 淺井潔 「性起に就いて」 『禪學研究』33, 昭和18
- 高峯了州 「如來出現の思想と華嚴經結構の意圖」 『龍谷學報』331, 1941
『華嚴論集』國書刊行會, 1976
- 坂本幸男 「同體緣起思想について」 『宮本印度佛教論集』昭和29
「同體緣起の構造とその意義」 『印度學佛教學研究』3-1, 昭和29
「性起思想と惡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5-2, 昭和32
- 川田熊太郎 「緣起と法界」 『駒澤大學文學部研究紀要』21, 昭和37
- 小林實玄 「法界緣起の研究序說」 『南都佛教』19, 昭和41
- 玉城康四郎 「華嚴の性起について」 『印度哲學と佛教の諸問題』所收,
宇井伯壽博士還曆記念論文集, 東京, 岩波書店, 昭和26
- 平川彰 「緣起と性起—華嚴の唯心偈をめぐって—」 『南都佛教』60·61合併號,
1989
- 鎌田茂雄 「性起思想の成立」 『印度學佛教學研究』5-2, 昭和32
「唯心と性起」 『講座·大乘佛教3 華嚴思想』春秋社, 昭和58
- 高崎直道 「華嚴思想の展開」 『講座·大乘佛教3 華嚴思想』春秋社, 昭和58
「The Tathāgatotpattisambhavanirdeśa of the Avatamsaka and the Ratnagotravibhaga—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term 'tathāgata-gotra-sambhava' (如來性起)」 『印度學佛教學研究』7-1, 昭和33
- 遠藤孝次郎 「華嚴無盡論」 『印度學佛教學研究』13-1, 昭和40
「華嚴性起論考」 『印度學佛教學研究』14-1, 昭和40
「華嚴性起論考」(續1) 『印度學佛教學研究』15-2, 昭和42
(續2) 『印度學佛教學研究』16-1, 昭和42
「華嚴無盡論—華嚴法界論」 東京學藝大學研究報告17, 昭和41
- 鍵主良敬 「大乘における相卽の論理の内景—煩惱卽菩提の思想について—」
『佛教學セミナー』3, 昭和41
「華嚴卽非論の一側面」 『大谷學報』53-3, 昭和48
「華嚴經における緣起と法界」 『東洋學術研究』13-3, 昭和49
「智儼における性起思想の一特質」 『大谷大學研究年報』39, 昭和51
- 木村清孝 「華嚴緣起說への道」, 東洋學術研究15-6, 昭和51
「韓國佛教における理理相卽論の展開」 『南都佛教』49, 昭和57
- 石橋眞誠 「華嚴の緣起說」 『印度學佛教學研究』31-1, 昭和57

- 吉津宜英 「舊來成佛について-性起思想研究の一視點-」 『印度學佛教學研究』 32-1, 昭和58
- 中條道昭 「華嚴の性起-智儼と法藏」 『印度學佛教學研究』 36-2, 昭和63
- 鄭舜日 「智儼の性起思想の特質」 『印度學佛教學研究』 39-2, 平成3

5.5. 法界 緣起說 연구

- 龜川教信 『緣起の構造』 京都, 全人社, 昭和19

박사의 『緣起の構造』는 화엄학의 法界緣起說을 중심으로 中觀의 空사상과 원시불교의 十二緣起說이 성립 되었다고 보고, 화엄의 「法界緣起說」을 중심으로 불교 연기설의 통일을 시도 하였다.

- 龜川教信 「法界無盡の論證にいて」 『龍谷大學論叢』 280, 昭和3
「四種法界の體系にいて」 『龍谷大學論叢』 305, 昭和8
「法界の意義について-華嚴教學を立場として-」, 『龍谷大學論叢』 250
- 宇井伯壽 「華嚴宗の法界緣起」 『佛教思想研究』 所收, 東京, 岩波書店, 昭和15
- 小林實玄 「事事無碍と事理無碍-性起との關連について」 『佛教學研究』 16·17 合併號, 昭和34
- 室住一妙 「理事について」 『大崎學報』 113·114, 昭和36
- 坂本幸男 「法界緣起の歴史的形成」, 『佛教根本眞理』 所收, 大東出版社

박사의 「法界緣起の歴史的形成」은 법계연기의 성립 과정에 대하여 상세하게 논하고 있으며, 특히, 화엄의 중심사상인 四種法界說의 형성과정을 명확히 밝히고 있다.

- 井筒俊彦 「事事無碍·理理無碍(上)-存在解體のあと-」 『思想』, 岩波書店, 1985
- 平川彰 「華嚴の四法界」 『法と緣起』 平川彰博士著作集 제1권, pp.66~69. 春秋社, 1988
- 鎌田茂雄 「法界緣起について」 『宗教研究』 39-186, 昭和40
「法界緣起と存在論」 『講座佛教思想』 第1卷 「存在論·時間論」

所收, 東京, 理想社, 昭和49

- 丘山新 「事事無碍法界の存在風景」 『理想』 所收, 理想社, 1983

5.6. 如來藏緣起 연구

- 山田亮賢 「如來藏緣起宗について」 山口還曆記念 『印度學佛敎論叢』, 法藏館, 昭和30

박사는 「如來藏緣起宗について」에서, '화엄체계의 사상적 기반을 이루고 있는 것은 如來藏緣起 사상이며, 법장 화엄교학의 근간을 이루고 있는 것도 如來藏 緣起思想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사상이다'고 강조 하고 있다.

- 山田亮賢 「眞如隨緣の思想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2-1, 昭和28
- 坂本幸男 「心性論展開の一斷面」 『印度學佛敎學研究』 2-1, 昭和28
- 小川弘貫 「華嚴宗に於ける如來藏思想」 『中國如來藏思想研究』 所收, 中山書房, 昭和51
- 高崎直道 「華嚴教學と如來藏思想-インドにおける性起思想の展開」 『華嚴思想』 法藏館, 昭和35

5.7. 唯心思想에 대해서

- 小林實玄 「華嚴教學における唯心の基礎構造」 『南都佛教』 4, 昭和32
「華嚴の心性論-原始華嚴における教學の形成と唯心の立場-」 『南都佛教』 7, 昭和34
「唯心回轉門の變遷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 31-1, 昭和57
- 宇井伯壽 「唯心緣起の法門」 「唯心緣起の法門の意義」 合本 『佛教汎論』 pp.657~776, 東京, 岩波書店, 昭和37

宇井伯壽박사는 인도 불교학 전공자이기 때문에 연기론적 입장에서 유심연기를 규명하려고 하였다.

- 土井虎賀壽 「華嚴の事事無碍と三界唯心」 『南都佛教』 7, 昭和34

- 高峯了州 「華嚴經の唯思想」 『南都佛教』7, 昭和34
- 玉城康四郎 「心佛衆生三無差別および三界唯心の華嚴思想における展開」 『心把握の展開』所收, 東京, 山喜房, 昭和36
- 「唯心の追究」 田熊太郎監修, 中村元編輯 『華嚴思想』所收, 法藏館, 昭和35
- 「十地經における三界唯心の諸問題」 위의 논문 『心把握の展開』에 所收

박사의 「十地經における三界唯心の諸問題」는 唯心思想을 실천적인 측면에서 인식하고, 증명하려는 의지가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특히, 『화엄경』의 「三界唯心」을 여러 각도에서 추구한 위의 논문은 주목 할만하다.

- 三枝充恵 「緣起と唯心」(위의 『華嚴思想』에 실려있음) 『唯心ということ』 『理想』, 理想社, 1983
- 根無一力 「華嚴教學に及ぼせる唯識思想の影響」 『龍谷大學大學院紀要』3, 昭和56

5.8. 相即·相入 논리에 대하여

- 龜川教信 「華嚴の即について-相即相入の根源的意義とその論理的構造-」 『佛教學研究』4, 昭和25
- 坂本幸男 「即の意義及び構造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4-2, 昭和31

박사의 「即の意義及び構造について」는 중관·화엄·천태등 많은 자료를 검토하여, 即의 논리가 연기의 논리이며, 空 논리의 전개이며, 圓融의 논리, 事事無碍의 논리라는 사실을 밝히고 있다.

- 佐藤賢順 「辨證論理と相即論理」 大正大學研究紀要39, 昭和29

佐藤賢順교수의 本 논문은 中論과 天台의 변증논리에 입각하여 화엄의 相即論理를 해명한 의미깊은 논문이다.

- 佐藤賢順 「事と時について-華嚴經の時間觀念-」 『印度學佛教學研究』3-2, 昭和30

박사는 위 논문에서 事의 場을 時間으로 하고, 근원적인 시간의 체험이 없고서는 緣起相即을 체득하기가 힘들다는 것을 주장하고 있다.

5.9. 成佛觀·佛身觀 연구

- 湯次了榮 「華嚴における佛身觀」 『六條學報』80·82, 明治41
- 龜谷聖馨 「華嚴圓教の佛身觀」 『中央佛教』10-9·10, 大正15
- 石井教道 「華嚴信滿成佛論」 『鹿溪』6, 大正7
- 「華嚴成佛論」 『宗教界』14-7~9, 大正7
- 龜川教信 「盧遮那と毘盧遮那の名目に就いて-華嚴の佛身觀-」 『六條學報』220,
- 木村清孝 「二種十佛說の成立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15-1, 昭和41
- 「智儼の佛身觀」 『宗教研究』50-4, 昭和

5.10. 信·業·解脫 연구

- 高峯了州 「無信根の場と展開」 『龍谷大學論集』371, 昭和37
- 山田亮賢 「華嚴教學における信の位置」 『日本佛教學會年報』28, 日本佛教學會編, 『佛教における信の問題』所收, 平樂寺書店, 昭和45
- 福原亮嚴 「華嚴における業-有部の業說と比較して-」 『印度學佛教學研究』15-1, 昭和41
- 鍵主良敬 「華嚴における業性の論理」 『佛教學セミナー』20, 昭和49
- 「業思想の研究」所收, 京都, 文榮堂, 昭和50
- 木村清孝 「華嚴學派の解脫思想」 佛教思想研究會編 『佛教思想8·解脫』所收, 京都, 平樂寺書店, 昭和57

5.11. 六相說 연구

- 桶口雲嶺 「華嚴六相圓融論の概要」 『高輪學報』22·23, 明治36
- 湯次了榮 「華嚴六相圓融私考」 『六條學報』139-141, 大正2-5

- 上山任介 「認識形式としての十玄及六相(唯心論としての華嚴哲學の續き)」 『東洋哲學』27-5-7, 大正9
- 兒玉雪玄 「六相圓融」 『密宗學報』85, 大正9
- 日野泰道 「華嚴に於ける六相說の思想史的考察」 『印度學佛教學研究』1-2, 昭和28 大谷學報33-2, 昭和28

日野泰道の 위 논문에서는 「華嚴六相說」의 역사적 전개와 함께 「六相」이라는 단어의 語源을 규명하기 위하여 梵語, 티베어, 漢譯本을 대조하였다. 十地の 第4願이 어떠한 의미를 지니는지에 대하여 고찰 하고, 그 결과, 법장의 六相說이 龍樹의 중관철학의 변증논리에 對比되고 있음을 밝힘과 아울러 화엄경에서 말하고 있는 「無盡緣起」의 세계도 辨證法的 체계로 설명되어질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 伊藤瑞叙 「六相說の源泉と展開」 『佛教學』13, 昭和57
- 成川文雄 「地論師の六相說」 『印度學佛教學研究』8-2, 昭和35

5.12. 空觀 연구

- 脇谷擔謙 「賢首大師の空論」 『華嚴經要義』所收, 京都, 興教書院, 大正9
- 鎌田茂雄 「華嚴思想の形成に果した空觀の役割」 密教文化64-65 合併號, 昭和38
- 増田英男 「華嚴無碍と辨證法」 『印度學佛教學研究』21-1, 昭和47
「華嚴教學における無碍と空」(1) 『印度學佛教學研究』27-1, 昭和53
(2) 『印度學佛教學研究』28-1, 昭和54
- 鍵主良敬 「華嚴學派の空思想」 佛教思想研究會編 『佛教思想7・空(下)』所收, 京都, 平樂寺書店, 昭和57

5.13. 화엄의 觀法 연구

- 藤谷還由 「華嚴の觀行」 『無盡燈』1-7, 明治29
- 脇谷擔謙 「華嚴の觀門」 『六條學報』29, 明治37

- 「華嚴の斷惑論」 『六條學報』48, 明治38
- 安藤義本 「華嚴の觀法に就いて」 『無盡燈』14-9, 明治42
- 湯次了榮 「華嚴觀法の梗概」 『六條學報』132, 大正1
- 大山公淳 「華嚴の觀道」 『六大新報』866·868·870~872, 大正9
- 石井教道 「華嚴總定論」 『佛教研究』2-4, 大正14
- 高峯了州 「佛敎的實踐の基盤-觀と行-」 『佛教研究』12·13, 昭和31
- 鎌田茂雄 「華嚴教學における止觀」 ?
- 石橋眞誠 「華嚴觀法の展開」 ?
- 坂本幸男 「華嚴經の觀法-特に三聖圓融觀について-」 『棲信』31, 昭和31
- 小林實玄 「華嚴宗初期の修觀の狀況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2, 昭和49
- 増田英男 「華嚴教學における(無碍)の解釋の問題點1」 『印度學佛教學研究』25-1, 昭和51
「華嚴教學における(無碍)の解釋の問題點2」 『印度學佛教學研究』26-1, 昭和52
「華嚴教學における無碍と眞空觀」 『印度學佛教學研究』31-1, 昭和57
- 吉津宜英 「華嚴禪の形成」 『理想』所收, 理想社, 1983
- 小林實玄 「華嚴觀門の展開と教學の變遷-原始華嚴より法藏まで」 『佛敎學研究』20, 昭和39
「華嚴宗觀行の展開について-緣起觀と性起觀-」 『印度學佛教學研究』15-2, 昭和42
「華嚴宗初期の修觀の狀況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2-2, 昭和49
「『義海百門』における法藏の觀・行の説示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7-2, 昭和54
「華嚴の(敎説)と(通觀)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9-2, 昭和56
- 多田孝正 「智顛の觀法と華嚴」 『印度學佛教學研究』27-2, 昭和54

5.14. 海印三昧·華嚴三昧 연구

- 青木正音 「海印三昧の基礎的意義」 『龍谷大學論叢』252, 大正12
- 高峯了州 「華嚴經に現わるる三昧一意味と關聯」 『佛敎學研究』2, 昭和24

高峯了州박사의 위 논문은 대승경전의 여러 삼매와 화엄경의 海印三昧, 獅子奮迅三昧, 華嚴三昧에 대하여 논하고 있다.

- 鍵主良敬 「華嚴三昧について」 『佛教における三昧思想』 日本佛敎學會篇, 1976
- 鎌田茂雄 「海印三昧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23-2, 昭和48
「海印三昧の世界」 『中國佛敎思想史研究』403項 參照
- 小林實玄 「『行人修道簡邪入正止觀法門』(『五教止觀』の華嚴三昧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25-2, 昭和52

5.15. 敎判論 연구

- 河野法雲 「華嚴の敎判と諸宗との關係」 『無盡燈』7-9·8-2, 明治35-36
- 脇谷篤謙 「華嚴の敎判同別二敎論」 『六條學報』25, 明治36
「華嚴の敎判」 『六條學報』26, 明治36
「戒賢·智光に對する賢首の評論」 『六條學報』23, 明治36
- 湯次了榮 「華嚴同別二敎の要旨」 『六條學報』130, 明治45
- 山名哲朗 「賢首家の權實觀」 『六條學報』186, 大正6
- 坂本幸男 「華嚴敎判における頓敎論攷」 大崎學報100, 昭和28

박사의 논문 「華嚴敎判における頓敎論攷」에서는 法藏의 頓敎論이 禪宗 형성에 촉매역할을 했다는 기존의 주장을 다시 확인하면서, 그 이면에는 『華嚴經』이 자체 속에서 가지고있는 遮詮的인 면이 바로 禪的인 요소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 坂本幸男 「華嚴學に於ける天台敎判」 『望月歡厚先生古稀記念論文集』 立正大學宗學研究所, 昭和26
「華嚴の同別二敎判の起源に就いて」 『宗敎學紀要』 第2輯.
「華嚴の緣起觀」 講座佛敎2, 『佛敎の思想1』 所收, 東京, 大藏出版, 昭和42
「敎判史の誕法師」 『印度學佛敎學研究』1-2, 昭和28
- 梅十照智 「華嚴五敎判の成立について」 『佛敎文化研究』8, 昭和34
- 村田常夫 「地論師の敎判に於ける頓敎論」 『印度學佛敎學研究』7-2, 昭和34

- 吉津宜英 「淨影寺慧遠の敎判論」 『駒澤大學佛敎學科研究紀要』35, 昭和52
「華嚴敎判論の展開—均如の主張する頓圓—乘をめぐって—」 『駒澤大學佛敎學科研究紀要』39, 昭和56
「淨影寺慧遠の『眞識』考」 『印度學佛敎學研究』22-2, 昭和49
- 釘宮武雄 「華嚴五敎十宗判の意義」 『行道佛敎學』 所收, 京都, 思文閣, 昭和54
- 石橋眞誠 「華嚴敎判の問題點」 『印度學佛敎學研究』30-2, 昭和57

6. 華嚴宗 祖師와 저작에 관한 연구

6.1. 화엄종 傳統論(宗祖論) 연구

중국 화엄종의 傳統論에 대해 종래부터 五祖說, 七祖說, 三祖說, 十祖說 등이 있어왔다. 이 가운데 전통적으로 杜順을 화엄종 종조로 보아왔고, 여기에 전혀 이의가 없었으나, 근·현대에 접어들어, 화엄학 연구가 활발해지기 시작하면서 中國 華嚴宗의 初祖는 누구인가 하는 문제에 대하여 관심을 갖게 되었고, 이에 대한 불교사학자들 사이에 학적 논쟁이 시작되었다.

전통론에 대하여 최초로 의문과 함께 이의를 제기하고 나온 학자는 불교사학자인 境野黃洋박사이다. 境野黃洋박사는 주요 저서인 『支那佛敎史の講話』 下卷, (共立社, 昭和4)의 「華嚴宗」 篇(pp.490~495)에서 정식으로 杜順 초조설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고, 기존의 傳統論을 부정 하였으며, 화엄종 초조는 智正이라고 주장하였다.

여기에 대하여 같은 불교사학자인 常盤大定박사는 「支那華嚴宗傳統論」 東方學報3(東京, 東方文化學院東京研究所 刊行, 昭和7)에 발표한 論文에서 境野黃洋박사의 화엄종 초조 智正說을 정면으로 反駁하고 나섰다. 常盤大定박사는 기존의 전통설을 지지하는 한편, 杜順, 智儼, 法藏의 전기를 상세히 조사 하는 문헌학적인 연구 방법을 통하여 근거 자료를 제시하였다. 뿐만아니라, 華嚴寺등 華嚴祖師들과 관련이 있는 史蹟址를 직접 답사

하고 『中國佛教史蹟踏査記』(東京, 龍吟社版, 昭和13)를 발표하였다. 여기에서 常盤大定박사는 杜順이 華嚴宗의 초조라는 사실을 확신있게 입증해 보이고 있다.

또 한분의 사학자 鈴木宗忠박사는 『原始華嚴哲學の研究』(大東出版社, 昭和9)에서 종래 杜順을 화엄초조로 하는 전통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새로 智儼이 華嚴宗 初祖라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또, 적극적으로 智儼 초조설을 제창하기 위하여 「華嚴宗の傳統について—智儼初祖説の提唱—」(學雜誌49, pp.563-569)이라는 논문을 발표하기도 하였다. 鈴木宗忠박사는 이 논문을 통하여 常盤大定박사의 杜順 초조설과 境野黃洋박사의 智正 초조설을 모두 부정하고 智儼 초조설을 적극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한편, 常盤大定은 새로운 자료를 보강하여 「續華嚴宗傳統論」을 東方學報5(東京, 東方文化學院 東京研究所, 昭和9)에 발표하여, 위의 鈴木宗忠 설을 크게 反駁하고, 杜順을 화엄종의 初祖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현재 학계에서는 境野黃洋박사의 설이나 鈴木宗忠박사의 주장 보다는 종래의 傳統論 즉, 杜順을 華嚴初祖로 인정하는 경향이며, 이에 대한 자료를 제시한 常盤大定の 현지 답사형 연구가 인정을 받고있다고 할 수 있다. 위의 내용을 더 자세하게 참고할 수 있는 자료는 다음과 같다.

- 境野黃洋 「華嚴宗」篇(pp.490~495), 『支那佛教史の講話』下卷, 共立社, 昭和4
- 常盤大定 「支那華嚴宗傳統論」 『東方學報』3, 東京, 東方文化學院東京研究所 刊行, 昭和7
『中國佛教史蹟踏査記』東京, 龍吟社版, 昭和13
「續華嚴宗傳統論」 『東方學報』5, 東京, 東方文化學院 東京研究所, 昭和9
- 鈴木宗忠 『原始華嚴哲學の研究』大東出版社, 昭和9
「華嚴宗の傳統について—智儼初祖説の提唱—」 『學雜誌』49, pp.563~569
- 石井教道 『華嚴教學成立史』東京, 石井教道博士遺稿刊行會』昭和39
- 鎌田茂雄 『中國華嚴思想史』東京大學出版會, 昭和40
-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史の研究』春秋社, 1992

6.2. 기타 화엄 祖師에 대한 연구

화엄종 祖師에 대해서는 주로 앞에서 언급한 전통론의 범주에 해당하는 인물에 대한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중국에 있어 화엄경이 지금의 모습으로 편찬되기 이전부터 이미 別行本들이 유통되고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이미 언급한바 있으며, 이 別行本들중에서도 「十地經」은 地論宗과 攝論宗의 성립에 많은 영향을 주었을 뿐만 아니라, 초창기 중국의 불교사상과 화엄사상 형성에도 지대한 영향을 끼쳐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중국에서 화엄사상이 형성될 수 있었던 것은 많은 祖師들의 연구나 수행이 있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화엄사상 전파에 선구적인 역할을 해왔던 알려지지 않은 祖師에 대해서 연구한다는 것은 매우 의미있는 일이며, 앞으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 이들 알려지지 않은 華嚴研究者, 修行者 그리고, 화엄학자에 대하여 몇 안되는 연구논문을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湯次了榮 「華嚴における惠光律師」 『六條學報』68, 明治40
- 河野法雲 「支那華嚴列祖の弘化」 『日華佛教研究會年報』3, 1938
「支那華嚴列祖の弘化」 『日華佛教研究會年報』4, 1939
- 坂本幸男 「教判史の誕法師」 『印度學佛教學研究』1-2, 昭和28

박사는 「教判史の誕法師」에서 범장의 저서인 『五教章』에 등장하는 誕法師가 『大乘義章』·『法華玄義』의 誕公과 同一人物일 것이며, 『解深密經疏』·『華嚴 刊定記』에서 소개되고 있는 誕法師와도 同一人物일 것이며, 『涅槃經集解』에 나오는 慧誕法師와도 同一人物일 것으로 推定하고 있다.

- 石井俊恭 「支那における華嚴學 研究」 『佛教文化研究』1
- 張愛順 「華嚴教學史における慧苑の教判」 『印度學佛教學研究』36-1, 昭和62

6.3. 화엄종 初祖 杜順에 관한 연구

다음은 화엄종 조사의 저작에 대한 해설, 강의, 연구논문중 화엄 초조인 杜順(法順이라고도함. 557~640)에 관한 연구를 살펴보기로 한다. 먼저, 두순의 저작으로는 『五教止觀』, 『法界觀門』, 『會諸宗別見頌』 등이 있는 것으로 전해오고 있다. 근대이후 明治와 大正, 昭和 초기까지는 화엄학 연구가 대부분 華嚴敎學의 大成者 法藏을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기 때문에 華嚴初祖 杜順이나 二祖 智儼에 대한 연구는 비교적 적은편이다. 杜順이나 智儼에 대한 연구는 昭和중반에 접어들면서 東京大名譽敎授인 鎌田茂雄박사와 龍谷大의 鎌主良敬교수를 필두로, 東京大의 木村清孝교수, 駒澤大學의 吉津宜英교수등에 의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있다.

6.3.1. 『法界觀門』 연구

먼저 杜順의 대표적인 저작이자 유일하게 남아있는것으로 알려진 『法界觀門』²³⁾은 그 眞僞 與否에 대하여 여러 학설이 있다. 이의 유일한 실마리는 화엄 제4조인 澄觀이 『法界觀門』에 대하여 언급하면서 杜順이 지은 것이라고 단정하고, 주석을 붙인 『華嚴法界玄鏡』²⁴⁾이 그것이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이 기록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 하고있다. 『法界觀門』이 관심의 대상이 되는것은 화엄사상에 있어 실천적인 면이 부족한점이 항상 지적되어 왔으나, 이 책이 『華嚴觀行』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음으로 해서, 유일하게 실천법에 대한 근거 자료가 되고있기 때문이다.

〈연구논문〉

- 常盤大定 「法界觀門」 『支那佛教の研究』, pp.314.409~412참조. 春秋社, 昭和13

23) 杜順 『法界觀門』, 大正藏45.

24) 澄觀 『華嚴法界玄鏡』, 大正藏45.

『華嚴宗傳統論及び續論』 『東方學報』3·5, 東京,

東方文化學院 東京研究所 刊行, 昭和7·9

『華嚴宗初祖杜順の華嚴法界觀門について』 『佛紀二千五百年記念學會紀要』 佛紀二千五百年記念學會紀要刊行會, 昭和10

- 高峯了州 「杜順と華嚴經の觀門的組織」 『華嚴思想史』 pp.145~154, 百華苑刊, 昭和17
- 石井教道 「華嚴觀行論」 『華嚴敎學成立史』416~426, 平樂寺書店, 昭和39
- 結城令閑 「華嚴の初祖杜順と法界觀門の著者との問題」 『印度學佛敎學研究』18-1, 昭和44
「隋唐の中國的新佛敎組織の一例として華嚴法界觀門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6-2, 昭和33
-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史の研究』 東京, 春秋社, 昭和52
『法界觀門』撰者考』 『宗教研究』195, 昭和43
- 吉津宜英 「法界觀門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28-1, 昭和54
「澄觀の華嚴敎學と杜順の法界觀門」 『駒澤大學佛敎學科研究紀要』 38, 昭和55

6.4. 화엄종 제2조 智儼에 관한 연구

6.4.1. 智儼의 사상에 관한 연구

〈智儼(602~668)의 傳記와 思想〉

- 坂本幸男 「智儼敎學における唯識說」 『日本佛敎學會年報』10, 昭和13
- 鎌田茂雄 「智儼の宗教の思想史的役割—佛敎の中國のを變容めぐって」 『駒澤大學佛敎學研究紀要』 21 昭和37
- 梅汁昭音 「智儼の敎判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6-2, 昭和33
-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史の研究』, 春秋社, 昭和52

木村清孝박사의 이 책은 중국에서 화엄사상의 성립 과정과 배경, 그리고, 화엄종으로 형성 되기까지의 제반 화엄학자 및 사상가들의 영향을 규명함과 동시에, 화엄종 성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한 華嚴二祖 智儼에 대한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로서 정평이 있다. 이외에도 박사의 지엄에 관

한 논문은 아래와 같다.

- 木村清孝 「智儼の學問的立場—その基礎的問題の檢討—」 『佛教學創刊號』
昭和51
「智儼と義相系の華嚴思想—五海印說をめぐって—」 『印度學佛教學研究』21-2, 昭和48
「智儼·法藏と三階教」 『印度學佛教學研究』27-1, 昭和52
「智儼における[十]の觀念」 『印度學佛教學研究』16-2, 昭和43
「智儼と海印三昧」 『東洋學術研究』15-4, 昭和51
「智儼の佛身觀—二種十佛說成立背景—」 『宗教研究』50-4, 昭和52
「智儼の淨土思想」 『インド哲學と佛教』 藤田宏達博士還曆記念論集, 平樂寺書店, 1989
- 惠谷隆戒 「華嚴宗二祖智儼の淨土宗思想について」 『淨土教の新研究』所收,
山喜房佛書林, 昭和51.
- 小林實玄 「唐初の淨土教と智儼『雜孔目』の論意」 『眞宗研究』24, 昭和55
「唐初の禪觀について—(『雜孔目』の記述にみられる智儼の説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8-2, 昭和55
「智儼教學の再考」 『印度學佛教學研究』34-1, 昭和60
- 中條道昭 「朝鮮華嚴文獻よりみた智儼の傳記」 『印度學佛教學研究』26-1, 昭和52
- 石橋眞誠 「智儼の思想的系譜」 『印度學佛教學研究』24-2, 昭和51
- 石井公成 「智儼の性起說」 『フィロソフィア』67, 昭和54
「智儼の如來藏思想」 『印度學佛教學研究』28-2, 昭和56
- 織田顯佑 「智儼の阿賴耶識說」 『佛教學セミナー』36, 昭和57
- 中條道昭 「智儼の一乘別教について」 『宗教研究』51-3, 昭和52
「智儼の教判說について」 『駒澤大學佛教學研究論集』9, 昭和53
- 織田顯佑 「智儼の同別二教判」 『印度學佛教學研究』31-2, 昭和58

6.4.2. 著作에 대한 연구

화엄 이조智儼의 저작으로는 『孔目章』, 『搜玄記』, 『五十要問答』, 『華嚴一乘十玄門』, 『金剛般若經疏』 등이 있다. 智儼에 관한 綜合的인 研究書로써는 앞서 소개한 木村清孝의 『初期中國華嚴思想史の研究』(pp. 390~

393)에 지엄의 저작물에 대한 자세한 목록과 내용 소개가 되어있다. 여기서는 저작물들에 대한 직접적인 연구서나 논문에 대한 최근의 연구성과를 소개한다.

〈孔目章〉

- 高峯了州 「華嚴孔目章解説」 南都佛教研究會, 昭和39

〈五十要問答〉

- 鎌田茂雄 「五十要問答心所有法義の基づく資料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6-2, 昭和33

〈華嚴一乘十玄門〉

『華嚴一乘十玄門』은 『一乘十玄章』이라고도 한다. 이는 화엄 초조 杜順이 설한 것을 화엄 제이조 智儼이 편찬했다는 설과, 杜順의 사상을 이어 받아 智儼이 저작했다는 異說이 있다. 여기에 대한 해석과 해설은 비교적 많은 편이다.

- 鎌田茂雄 『華嚴一乘十玄門譯并解題』, 國譯一切經·諸宗部4·上
- 結城令閑 『『華嚴一乘十玄門』解説』 『佛書解説大辭典』제 3권 所收,
- 石井公成 「『一乘十玄門』の諸問題」 『佛教學』12, 昭和56
- 目置孝彦 「搜玄記と一乘十玄門にみられる法界緣起の相違」
『印度學佛教學研究』27, 昭和54

이외에도 『金剛般若經疏』가 있으나 華嚴과는 별로 관계가 없기 때문에 생략하기로 하고, 『入法界品抄』와 『無性釋論疏』는 현존하고 있지는 않지만 『五十要問答加盡章』과 『法界圖記叢隨錄』 등에서 그 단편을 엿볼 수 있다고 전해오고 있다.

6.5. 화엄교학의 대성자 제3조 法藏에 관한 연구

중국 화엄교학의 大成者 법장에 대한 연구는, 明治 이후 부분적 내지

각각의 테마별로 연구가 이루어져 왔으나, 본격적이고 종합적인 法藏의 화엄사상에 관한 연구서는 아직 나오지 않고있다. 새로운 연구성과를 기대하면서 이제까지의 연구상황을 살펴보기로 한다.

6.5.1. 傳記에 대한 연구

법장(643~712)의 전기에 대한 기본 자료는 『宋高僧傳』(大正藏50)과 崔致遠이 지은 『法藏和尚傳』(大正藏50)이 있다. 법장에 대한 초기의 연구서로 湯次了榮의 『華嚴教祖賢首大師』가 六條學報 63-65(明治40)에 발표되었으나 傳記적 연구의 수준을 넘어서지 못하고 있다.

- 佐藤泰舜 『法藏』 岩波 『世界思潮』所收
- 神田喜一郎 「唐賢首國師眞蹟〈奇新羅義相法師書〉考」 『南都佛教』11號, 1962
- 鍵主良敬·木村清孝 『法藏』, 大藏出版, 1991

두 교수의 책 『法藏』은 가장 최근에 출판된 전기및 사상에 관한 내용을 정리한 단행본으로써, 접근하기 쉽게 정리되어 있고, 法藏의 생애를 통하여 저작물의 진위 문제를 상세하게 설명 하고있다. 이 책은 法藏 입문서의 성격을 띠고있다.

- 小林實玄 「華嚴法藏の事傳について」 『南都佛教』36, 昭和51
- 吉津宜英 「法藏傳の研究」 『駒澤大學佛敎學研究紀要』37, 昭和54
「華嚴經傳記について」?
「法藏の著作の撰述年代について」 『駒澤大學佛敎學論集』10, 昭和54
- 鎌田茂雄 「賢首大師法藏と法門寺」 『印度學佛敎學研究』38, 平成元年

6.5.2. 法藏의 華嚴敎學 사상에 관한 연구

〈法藏의 화엄경 이해 연구〉

- 石橋眞誠 「法藏敎學의 思想的背景」 『印度學佛敎學研究』8-2, 昭和35
- 坂本幸男 「賢首大師의 書簡について」 『書品』62, 昭和30
- 神田喜一郎 「唐賢首國師眞蹟〈依新羅義相法師書〉考」 『南都佛教』26, 昭和46

- 山田亮賢 「華嚴法藏の善知識觀」 『大谷學報』1-3, 昭和37
- 鍵主良敬 「法藏における初地歡喜地の理解」 『印度學佛敎學研究』19-2, 昭和46
「賢首法藏における智慧觀の一側面」 『佛敎學セミナー』34, 昭和56
- 大谷光眞 「法藏のビルシヤナ佛觀」 玉城康四郎博士還曆記念論集 『佛研究』所收, 東京, 春秋社, 昭和52
- 清水公照 「華嚴敎學の形成と法藏」 『アジア佛敎史·中國編1, 漢民族の佛敎』所收, 東京, 交成出版, 昭和50
- 木村清孝 「法藏の華嚴敎學」 『理想』所收, 理想社, 1983
- 赤尾榮慶 「法藏にみえる草木成佛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32-3, 昭和59
- 池 要 「華嚴における「十義門」について—特に法藏を中心として—」 『印度學佛敎學研究』37-1, 昭和63
- 吉津宜英 「法藏の一乘大乘への批判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38, 平成元年
- 張 愛順 「法藏の佛敎觀—教即觀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41, 平成4

〈空觀 연구〉

- 安田一雄 「賢首敎學における空思想」 『日本佛敎學協會年報』8, 昭和11
- 田中順照 「空觀の發展, 賢首」 『空觀と唯識觀』所收, 京都, 永田文昌堂, 昭和38
「賢首における空觀」 『南都佛教』11, 昭和37
- 赤尾榮慶 「法藏における空觀」 『印度學佛敎學研究』29-2, 昭和56
- 宇衛康弘 「法藏における二諦觀」 『駒澤大學大學院研究會年報』16, 昭和57
- 張 愛順 「法藏における空觀の特質—十二門論宗致義記を中心として—」 『印度學佛敎學研究』38, 平成元年

〈心識論 연구〉

- 小林實玄 「八識に關する法藏の解釋」 『佛敎學研究』18, 昭和36
- 鍵主良敬 「法藏における一心の性格について」 『印度學佛敎學研究』13-2, 昭和40
- 陳 永裕 「華嚴十重唯識における轉眞成事の一考察」 『印度學佛敎學研究』38-1, 平成元年

〈緣起·性起觀 연구〉

- 龜川教信 「賢首に於ける萬法緣起の構造」 『龍谷大學論叢』272, 昭和2
- 目幸默僊 「法藏教學における因果二分思想」 『宮本博士還曆記念印度學佛教學論集』東京, 三省堂, 1954.
- 目幸默僊 「法藏教學における因果二分思想」 『宮本博士還曆記念印度學佛教學論集』東京, 三省堂, 1954.
- 吉津宜英 「(緣起)用例と法藏の法界緣起說」 『駒澤大學佛教學科研究紀要』40, 昭和57

〈法界緣起說 연구〉

- 田中順照 「事事無碍への一階梯-因の六義について」 『宗教研究』122, 昭和24
「事事無碍の一階梯としての三性說」 『宗教研究』131, 昭和27

〈教判論 연구〉

- 吉津宜英 「法藏の四宗判の形成と展開」 『宗教研究』240, 昭和54

〈三性說 연구〉

삼성설은 법장의 사상형성에 가장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다.

- 山田亮賢 「華嚴法藏の三性說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4-2, 昭和31
「華嚴三性說の立場」 『大谷學報』35-4, 昭和31

山田亮賢박사는 위 두편의 논문을 통하여, 법장의 저작중 삼성설을 논한 자료를 제시하고, 법장이 性相融會를 위하여 유식의 논리인 삼성설을 받아들였던 근거가 『攝大乘論』의 二分依他性이라는 점을 명확히 밝혀주고 있다.

- 田中順照 「賢首大師に於ける三性の理解」 『密教文化』20, 昭和
「賢首大師法藏の三性說」 『印度學佛教學研究』6-2, 昭和33

田中順照의 위 논문은 반야의 중심사상인 中觀哲學과 대조 하여 엄밀히 논리를 전개하고, 법장의 삼성설이 事事無碍에 一階梯임을 논증하고 있다.

- 小林實玄 「法藏の三性說について-華嚴における如來藏解釋の問題-」 『印度學佛教學研究』9-1, 昭和36
- 赤尾榮慶 「法藏の華嚴三性說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8-2, 昭和56
- 長尾雅人 「後得智と賢首大師」 『宗教研究』150, 昭和31
「法藏の三性說に對する若干の疑問」 『京都大學文學部50周年記念論集』, 所收, 昭和31

長尾雅人박사의 위 두 논문은 법장의 사상형성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 논문이다. 법장이 『攝大乘論』에 자세히 논해지고 있는 後得智에 대해서 충분히 주의 하지않고, 還歸的·向下的인 後得智를 向上的·脫世間的으로 보았던 점을 지적하고 있다. 특히, 法藏의 三性說을 인도 瑜伽行(Yoga)派의 삼성설과 대조하면서 화엄철학 성립 근거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6.5.3. 著作 연구

〈五教章〉

華嚴學 概論書인 『華嚴五教章』에 대한 연구는 앞서 소개 한바있는 佐木月樵의 『華嚴教學』에 법장의 화엄 教學體系가 잘 정리되어 있다. 그 외에 강의서나 해설서로써 비교적 초기의 것으로서 다음의 책들이 있다.

- 山縣玄淨 『華嚴五教章玄談』 明治31
- 山本儼識 『華嚴五教章玄談』 明治38
- 吉谷覺壽 『華嚴五教章略解』 明治34
- 齋藤唯信 『華嚴五教章講義』 明治36
- 河野法雲 『華嚴五教章講義』 京都, 法藏館, 大正7年再刊
- 湯次了榮 『華嚴五教章講義』 百華苑, 昭和2. 複刻 昭和50
- 鎌田茂雄 『華嚴五教章』 國譯一體經·諸宗部4上, 大東出版社, 昭和54
『華嚴五教章』 大藏出版, 昭和54
- 吉津宜英 「華嚴五教章の鍊本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6, 昭和52

〈探玄記〉

『華嚴經』의 주석서인 『探玄記』에 관한 연구로는 坂本幸男에 의해 번역되어 國譯一體經에 수록된 『探玄記』(大東出版社)가 있다. 이 책은 일본어로 直譯되어 있는 것으로서, 原文에 대한 校訂이 치밀하고 註解가 상세하기 때문에 단지 번역이라는 성격을 뛰어넘은 勞作으로 당시의 大家들이 높이 평가 하고 있다.

『探玄記』는 스승인 智儼이 지은 것으로 알려진 『搜玄記』에서 사상적으로 영향을 받아 이루어졌으며, 澄觀의 『華嚴經大疏抄』등과 사상적으로 긴밀한 관련을 갖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는 점에, 이 연구서의 특징이 있다고 할 수 있다.

〈五教止觀〉

- 結城令聞 「華嚴五教止觀撰述者論考—〔五教止觀〕の杜順撰述を否定し、法藏撰〔遊心法界記〕の草稿なりと推定す—」 『宗教研究』新7-2, 昭和5

結城令聞박사의 이 논문은 『五教止觀』이 종래까지 초조 杜順의 저작으로 알려져 왔던것을 法藏이 撰述한 것으로 시정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 鈴木宗忠 『原始華嚴哲學の研究』 大東出版社, 昭和9

鈴木宗忠박사의 『原始華嚴哲學の研究』는 『五教止觀』의 성립연대 및 찬술자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으며, 여기에서도 杜順 저작설을 부정하고 法藏의 찬술임을 주장하고 있다.

〈發菩提心章〉

『發菩提心章』은 『華嚴三昧章』이라고도 불리는데 이 책의 내용속에는 杜順의 저작인 『法界觀門』의 전문이 인용되어 있다.

- 常盤大定 「華嚴三昧觀について」 『支那佛教の研究』 제1권, pp.413~420, 春秋社, 昭和18

- 鈴木宗忠 『原始華嚴哲學の研究』 大東出版社, 昭和9
- 木村清孝 『初期中國華嚴思想の研究』 所收, pp.328~
- 結城令聞 「華嚴の初祖杜順と『法界觀門』の著者との問題」 『印度學佛敎學研究』 18-1, 昭和44
- 小林實玄 「『華嚴三昧觀』の研究—法界觀に關する法藏の加説とその周邊—」 『印度學佛敎學研究』 24-1, 昭和50

화엄학의 권위자인 小林實玄 박사의 『華嚴三昧觀の研究』는 杜順의 『法界觀門』과 法藏의 『發菩提心章』 및 『華嚴三昧章』에 대한 著述者 문제를 논점으로, 문제가 되어지고 있는 점들에 대한 새로운 자료를 제시 하고 있기 때문에 이들을 둘러싼 다양한 학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이 되고 있다.

〈遊心法界記〉

『遊心法界記』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鈴木宗忠의 『原始華嚴哲學の研究』, (大東出版社, 昭和9)에 조금 언급되고 있을 뿐이다.

〈妄盡還源觀〉

화엄교학은 실천과 수행에 대한 언급이 비교적 적다는 설이 일반적인데, 실천법의 하나인 觀法에 관한 내용을 『妄盡還源觀』에서 찾아볼 수 있다. 『還源觀』은 六觀의 실천을 주장하고 있는데, 六觀이란 처음의 體 즉, 自性清淨圓明體에서 부터 二用 三遍 四德 五止 六觀까지를 실천적으로 설명 하고 있다.

이렇게 실천적인 측면에서 수행이론을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화엄학자 뿐만 아니라 唐·宋代의 선수행자들이 수행이론으로 채택하기도 하였다. 특히, 唐代 선종중 臨濟宗의 시조인 臨濟義玄(?~867)과 송대 法眼宗의 巨匠 永明延壽(904~975)가 저작한 『宗鏡錄』宋代의 臨濟宗 楊支派의 禪匠 圓悟克勤(1063~1135)에 의해 저작된 『碧岩錄』 등은 화엄사상의 영향이 많으며, 수행이론으로는 『妄盡還源觀』의 이론이 많이 받아들여지고 있음

을 엿볼 수 있다.

이 책이 法藏의 저작인지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있다. 먼저, 『妄盡還源觀』이 法藏 저작이라는 주장의 근거로는, 宋代 화엄학자 晋水淨源(1011~88)의 저작인 『還源觀記重校』²⁵⁾에 법장 저술로 단정하는 이유가 기술되어 있는 것을 들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이유는, 화엄5조인 圭峯宗密(780~841)의 在家제자 裴休(787?~860?)가 화엄4조인 清凉澄觀(738~839)이 入寂한뒤 그의 傳記를 기록한 『妙覺塔記』의 내용속에 “康藏還源觀”이라고 하는데서 법장의 眞作임을 확인하려고 하고있다. 여기서 ‘康藏’이란 법장을 가리키며, 또는 그의 선조의 출신지가 康居國이기 때문에 붙여진 이름이다.

이러한 법장 저작설은 宋代이후 별다른 이의없이 지금까지 이어져 왔으나, 최근의 화엄학자들 가운데에서는 『妄盡還源觀』이 법장의 진작이 아님을 주장하고 있다. 小島岱山은 「『妄盡還源觀』의 撰者를めぐ는諸問題」(南都佛教49(昭和57))에서 宋代의 晋水淨源에 의하여 법장 저작설이 정착되기 이전에는 杜順의 저작으로 알려져 있었으며²⁶⁾ 이는 상당히 일반화된 증거임을 전제하고, 당시의 문헌을 중심으로 상세히 조사분석 하고있다. 氏의 결론은, 법장 입적후(712년이후) 澄觀에 이르는 사이 법장의 제자들에 의하여 당시의 화엄주류인 법장의 사상을 중심으로하여 저작되었으나, 여기에는 당시 거사불교의 선구자인 李通玄(635~730)의 화엄사상인 “一眞法界”사상이 크게 도입되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妄盡還源觀』은 화엄과 선을 이해하고 실천하는데 빼놓을 수 없는 중요한 것이므로 많은 관심과 연구를 기대해 본다.

- 鎌田茂雄 『修華嚴奧旨妄盡還源觀并序』 國譯一切經, 諸宗部4, 上
『妄盡還源觀』의 思想史的意義, 『南都佛教』20, 昭和42

25) 大正45, 641, 上

26) 『妄盡還源觀』의 杜順 저작으로 기록된 문헌으로는,

1. 『全唐文』卷449, 高呈(『欽正全唐文』10, 中文出版社, 5805項 참조)
2. 『新唐書』第165, 列傳第90, 高呈(『新唐書』), 中華書局, 第16冊, 5073項 參照)
3. 『祖庭事苑』, 卍續藏(新文豐出版刊行本), 123冊, 196下.
4. 『佛祖統紀』, 法順(杜順을 말함)項, 大正49, 293上
5. 『宗鏡錄』, 大正48, 417下

- 上田照遍 『妄盡還源觀講義』, 爲法館, 明治34
- 龜川教信 『科節講本修華嚴奧旨妄盡還源觀并解題』, 興教書院, 昭和15
- 小島岱山 「自性清淨圓明體の成立事情—如來藏·自性清淨心の絶對化—」
『印度學佛教學研究』30-1, 昭和56
『妄盡還源觀』의 撰者를めぐ는諸問題, 『南都佛教』49, 昭和57

〈普賢觀行法門에 관한 연구〉

- 鎌田茂雄 「華嚴經 普賢觀行法門」, 『駒澤大學佛教學科研究紀要』25, 昭和42

〈金獅子章에 관한 연구〉

- 境野黃洋 「金獅子章」に關する傳説, 『支那佛教史講話』 共立社, 昭和4,
- 上田照遍 『冠註金獅子章』 明治26
- 龜谷天尊 『金獅子章講義』 光隆館, 明治42
- 鎌田茂雄 『中國華嚴思想史の研究』 pp.596~, 東京大學出版會, 1965

鎌田茂雄박사는 이 책에서 「금사자장」의 사상적 성립배경을 武周시대의 왕조와 관련하여 시대적, 사회적 배경과 함께 설명하고 있다.

〈華嚴經問答〉

이 『問答』은 性起와 緣起의 차이점을 논하고 있는데, 다른데에서 예를 볼 수 없을 정도로 깊이 고찰하고 있다. 근래에도 性起思想에 관한 연구를 할때에는 반드시 이 책을 참고할 정도다. 그러나, 『問答』은 법장의 저작이 아니라는 설이있어, 眞僞에대한 시비가 고대로부터 계속 되어왔다. 진위에 대한 논쟁에 대해서는 鎌田茂雄 「法藏撰述華嚴經問答について」(印度學佛教學研究7-2(昭和34))가 있다. 한편, 위작임에 틀림없으며, 이 『問答』은 신라에서 성립되었을 것으로 추정하는 연구가 발표되었다.

- 吉津宜英 「性起と緣起」 『東洋學術研究』22-2, 昭和58
『舊來成佛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32-1, 昭和58

吉津宜英박사는 위 두논문에서 『華嚴經問答』이 신라에서 성립되었을

것으로 주장하고있다.

- 石井公成 「『華嚴經問答』の著者」 『印度學佛教學研究』33-2, 昭和60

石井公成교수는 이 논문에서, 중국에 유학을 가본일이 없는, 그러면서도 性起思想을 잘 이해하고 있는 연구가에 의하여 쓰여졌을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또, 海東 華嚴初祖인 신라 義相의 저작인 『華嚴一乘法界圖』와 『法界圖』를 주석하고, 古記를 수집하여 집대성한 『法界圖記叢髓緣』의 문에서 사용되고 있는 용어가 자주 쓰이고 있고, 문체의 스타일이 유사한 점을 들어 新羅 성립설을 주장 하고있다.

〈기타 法藏의 저작에 관한 연구〉

다음은 華嚴學과 직접적인 관계는 없지만 華嚴思想과 조금이라도 관련이 있는 것중에서 法藏이 저작한 경위나 논 의 주석서 들에 대한 연구 업적을 간략히 소개해 보기로 한다.

- 小林實玄 「(如來藏緣起宗)考—法界無差別論疏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10-2, 昭和37
『義海百門』における法藏の觀·行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7, 昭和54
- 吉津宜英 「法藏『大乘起信論義記』の研究—それ以前の諸註釋書との比較を通して—」 『駒澤大學佛教學論集』11, 昭和55
- 吉津宜英 「法藏の『大乘起信論義記』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29-1, 昭和55

吉津宜英교수는 위 논문에서, 『義記』는 『大乘起信論』을 연구하는 지침서로서의 역할을 하고있으며, 우리나라 元曉聖師의 『起信論疏』를 풀이해 놓은 것으로 보고있다. 이 두편의 논문은 法藏의 如來藏 사상에 관해서 알아볼 수 있고, 元曉聖師의 『起信論疏』와 비교 검토 해볼 수 있는 좋은 논문이다.

- 吉津宜英 「法藏の一乘大乘への批判について」 『印度學佛教學研究』38, 平成元年

7. 화엄학 연구와 과제

이상으로서 현재까지의 일본의 화엄학 연구 동향과 연구성과, 저작 등에 관해 살펴보았다. 시간이 나는대로 가능한한 이곳 저곳을 다니면서 자료 수집에 최선을 다했으며, 그 결과 이 자료집이 양적인 면에서 鎌田茂雄박사의 최근작 『華嚴學研究資料集成』보다 풍부하고 알기쉽게 자료소개가 되어있지 않을까 생각한다.

무엇보다도 이번 자료정리를 통하여 얻은 성과는, 일본 화엄학자의 연구성과를 직접 확인하는 계기가 된 점이라고 할 수 있다. 일본 학자들에 의한 큰 연구 업적이, 華嚴學과 불교학 발전에 초석이 되고 있음을 매우 다행한 일이 아닐 수 없다. 그러나, 문헌학적 검증이나 면밀한 사상적 고찰이 제대로 되어있지 않은 부분이 많이 남아있음도 또한 지적하고 싶다.

화엄학은 그간 활발한 연구활동에도 불구하고, 화엄사상 자체가 지닌 웅대한 세계관으로 인하여, 여전히 연구해야 할 과제가 많이 남아있다. 이들 연구는 현재 화엄학을 연구하고 있는 이들과 화엄학 연구에 뜻을 둔 우리들의 몫이다. 본 자료집은, 비록 일본학자들의 연구성과를 수록하고 있기는 하지만, 바로 이런분들에게 요긴하게 활용되어 질 것을 바라는 마음에서 정리되었다. 부디, 화엄학 연구에 뜻을 두신 많은 분들에게 연구 방향의 설정과 보다 나은 연구풍토를 조성하는데 一助가 되기를 禱願한다.

아울러 동경에 계시는 동안 이 자료집이 나오도록 제안해주신 서울대 최병헌 교수님께 지면을 통하여 깊은 敬意를 표하는 바이다.

끝으로, 일본에서 중국불교 사상연구에 있어, 가장 최근에 관심을 가지고 연구가 진행중인 논점과 발표된 논문을 소개해 보겠다.

지난해부터 東京大學에 「朝鮮文化研究所」가 문을 열면서 본격적인 한국 文化 연구가 시작되었다. 이 연구소의 연구성과로서 금년 3월에 제1호 朝鮮文化研究會誌가 발행되었다. 여기에 동경대 木村清孝교수가 「『白花

道場發願文』再考」를 발표하였다. 이 논문은 1991년 12월에 동경대학에서 개최된 동경대학·서울대학 제1회 심포지엄에서 木村清孝교수가 『白花道場發願文』의 義相 저작설에 대하여 의문을 제기한데 대하여, 한국 학자들의 義相 저작설의 타당성을 답변 형식으로 발표한 것이다. 또, 최근에 일본에서는 「本覺思想」에 대한 논란이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本覺思想, 즉, 如來藏思想은 불교가 아니라는 주장이 曹洞宗 宗學의 본거지인 駒澤大學의 袴谷憲昭와 松本史朗교수 등에 의해 제기되면서 본격화 되었다. 이와는 반대로, 本覺思想은 불교가 중국에 들어와 정착하는 과정에서 중국사상과 밀접한 관련성 속에서 나타났으며, 이를 가장 중국적인 불교사상으로 발전시킨 또 하나의 眞理觀이라고 주장하면서 위 두선생의 학설을 비판하고 나선 미국인 Peter, M. Gregory를 중심으로 열띤 토론이 지난 6월 27일 駒澤大學에서 있었다. 참으로 유익한 세미나였다.

1994년도 제45회 印度學佛敎學會가 東京 武藏野女子大學에서 5월 21·22 양일간에 걸쳐서 열렸다. 이번 학회에서 발표된 화엄관계 논문을 추가로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 小林圓照(花園大學교수) 「Gāṇḍavyūhaにおけるウパーシカー・アーシャー(āśa)の法門」
- 梶山雄一(佛敎大學교수) 「Gāṇḍavyūha およびEkajātipratibaddhaの語義について」
- 石井公成(駒澤短期大學교수) 「『大集經』尊重派の地論師」
- 曹潤鎬(東京大學大學院) 「宗密『大乘起信論疏』の成立について」
- 館野正生(駒澤大學大學院) 「法藏の修道的側面—道元の體験の世界から—」
- 李惠英(東京大學大學院) 「『續華嚴略疏刊定記』研究」
- 織田顯佑(大谷大學교수) 「華嚴經と聲聞—二教差別の背景—」
- 佐藤厚(東洋大學大學院) 「均如『一乘法界圖圓通記』と『大記』との關係」
(위 논문들은 『印度學佛敎學研究』에 요약되어 掲載될 예정이다.)

일본의 중국화엄사상 연구의 역사와 현황

— 澄觀·宗密·李通玄을 중심으로 —

曹潤鎬

〈目次〉

1. 들어가는 말
2. 일본 근대불교학의 발자취와 중국불교에 대한 관심
3. 일본에서의 화엄사상 연구사
4. 맺는 말
- * 부록

1. 들어가는 말

인도에서 발생한 불교는 중국이라는 문화적·사상적 배경을 전혀 달리하는 지역에 移植되어 그 형식과 내용에 있어서 커다란 변화의 과정을 거치게 된다. 우선 외면적 모습에 있어서는, 불교는 중국에 전래되는 과정에서 처음부터 철저히 당시의 중국어 즉 漢語로 번역되어 그 언어적 형식에 있어 완전한 탈바꿈을 하였다. 일반적으로 어떤 특정한 언어체계에 속하는 문헌 내지는 사상이 그와 전혀 다른 언어로 번역·소개 될 경우, 번역의 방법상 그때 사용되는 사상과 개념은 번역하는 측이 소유하는 기존의 사상과 문화 등에 바탕한 인식체계 내지는 사유구조 위에서 형성된 것임은 어찌하면 너무나 당연한 것일지도 모른다. 더구나 그 대상이 종교적인 성격이 강한 것일 경우, 기존 종교와의 관계 또는 그들이 갖는 종교적 성